Economy p/12

태블릿시장 속도경쟁 치열

metro®

메트로 2014년 12월 23일 화요일 제3122호 www.metroseoul.co.kr

Entertainment p/18

얼룩진 SBS 가요대전

"구조개혁으로 돌파구 찾는다"

가계대출·기업 구조조정·국제금융 변화 선제 대응
기초체력 다져 경제 활력… 방향 옳지만 내용 부족

2015 경제정책 방향 발표

한국경제를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지도 모를 내년도 경제화두로 정부가 구조개혁을 꺼내들었다.

3%대 초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주요 분야의 체질부터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제체질 강화보다는 단기적인 경기활성화에 지나치게 쏠려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 58% 상반기 집행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은 경기 활성화와 구조 개혁, 투 트랙으로 이뤄졌다.

우선 공공기관과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구조개혁의 불씨를 만든 정부는 내년에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혁에 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부문에서는 보험사와 증권사 간 칸막이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핀테크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부문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고용 촉진과 우수 외국인력 유치 등에 나선다.

교육부문에서는 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맞춰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의 58%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하는 등 확장적 재정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 임금 단계적 인상, 가계소득 증대세제 시행, 연기금을 통한 배당 확대 유도 등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민간투자 확대, 30조원 신규투자 유도,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등 투자 촉진 정책도 함께 실시한다.

◆정부도 성장률 전망치 0.2%p 낮춰

정부가 이같은 대응에 나선 것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하향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제금융시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28개 해외 경제예측기관이 내놓은 한국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평균 3.5%로 집계됐다. HSBC와 미국 시장조사기관 IHS이코노믹스의 전망치가 3.1%로 가장 낮았고 BNP파리바는 3.3%로 내다봤다.

한국의 내수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데다 중국·유럽의 경기 둔화와 엔저 심화로 수출에도 먹구름이 낄 수 있다는 예측이 성장률 전망치를 갈수록 끌어내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춘 3.8%로 제시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소비심리 위축과 내년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민간의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활력 높이는데 주력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2015년은 선거가 없는 해로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제구조 개선에 나설 적합한 시기"라며 "구조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활력제고 정책을 펼치면서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 관리 대책을 내놓는 등 큰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추진할 정책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하고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3.8%도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은 "구조개혁 그 자체로 한국 경제의 장기적 체질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경제 활력 제고의 수단으로 보는 느낌이 든다"며 "좀 더 냉정하게 욕심을 줄여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6·9·10면>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2015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는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檢, '조현아, 증거인멸 교사' 자료확보

구속영장 적극 검토

대한항공 조현아(사진)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전후 사정을 보고받았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2일 사건의 은폐·축소를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대한항공 여모(57) 상무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됐던 문자메시지와 SNS 메시지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복구한 통신 기록에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난 8일부터 최근까지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사무장 등 직원들에 대한 조치 상황과 국토교통부 조사와 관련해 보고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상무는 그 동안 세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하면서도 조 전 부사장이 개입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지시를 내리지 않았더라도 사건이 알려진 시점 이후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면 전후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한 셈이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23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회사 차원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여 상무 외에 다른 임직원들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전담 검사를 배정,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8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 전 부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일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김두탁기자 kimdt@

'세탁기 분쟁' 점입가경

기자 수첩
정 혜 인
<경제산업부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 사이에 불거진 '세탁기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9월 독일에서 LG전자 고위 임원이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며 삼성전자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이번엔 LG전자가 맞고소로 대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검찰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으며 LG전자는 삼성전자의 증거 위조를 주장하는 등 양사가 매우 강경한 태도로 맞서고 있다.

이 분쟁은 한동안 잠잠했지만 업계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 여기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사과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은 것에,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지나치게 대응했다는 것에 불만이 큰 상태였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LG전자가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으며 이번 인사 발표에서 조성진 사장이 가전 부문 1인자로 올라선 것에 대해 사실상 승진이 아니냐며 불만을 표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고위 임원을 상대로 고소까지 해야 할 문제였는지 의구심을 던지기도 했다. 이처럼 양사 사이에 패인 골이 워낙 깊은 데다가 이전 냉장고, 에어컨 분쟁 등과 달리 고위 임원진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당분간 이 문제가 쉽게 끝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가전 업계 1위를 두고 경쟁을 벌여오던 두 기업이 지나친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것에 우려가 든다. 특히 출국 금지된 조성진 사장은 1월 6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의 참석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CES에서 신제품 공개와 기자간담회를 주관할 예정이었던 조 사장이 참석하지 못하면 LG전자로선 큰 타격이다. 나아가 우리 가전업계에도 치명적인 인상을 남길 것이 분명하다. 두 기업이 하루 빨리 이번 논란을 마무리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지속 발전하길 기대한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통진당 6명 의원직 상실

선관위 결정… 기초의원 31명은 직위 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통진당 소속이었던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례 광역의원 3명은 각각 광주시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소속이며 비례 기초의원 3명은 각각 전북 순천시의회, 여수시의회, 해남군의회 소속이다.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37명이 속해 있었다.

선관위는 통진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이들은 일단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이 22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통합진보당 광역-기초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의원, 크리스마스캐럴 재능 기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의원 재능 기부 크리스마스캐럴 앨범 발매 기념식'에서 산타복장을 입고 하트를 만들고 있다. 왼쪽 부터 이이재, 윤명희, 홍문종, 김무성, 이윤석, 김상민 의원. /연합뉴스

조계종 종정 "새해에는 인성도야에"

조계종 종정인 진제 스님은 22일 신년 법어를 통해 "새해에는 인성 도야에 힘쓰자"라고 말했다.

진제 스님은 "동서고금 모든 성인의 고구정녕한 가르침은 시(是)와 비(非)를 떠난 중도(中道)의 인성 도야"라며 "(인성 도야를 위해) 나라는 헛된 망상을 뿌리째 뽑아 없애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일상 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라는 화두를 들고 간절히 의심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부처님이 한결같이 말씀하신 계는 '악행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행하지 말 것이며, 선행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반드시 실천하라'(諸惡莫作 衆善奉行)는 가르침"이라며 "새해에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자"고 덧붙였다.

진제 스님은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을 꾸짖지 않고 화합을 이룬다"며 화합을 당부했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땅콩 회항' 부실조사 국토부 감사 청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이날 "국토부는 대한항공을 통해 조사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사건 관련 사실관계 확인서를 조사 당사자가 아닌 대한항공을 통해 받았다"며 "감사원은 국토부의 사무와 직무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달라"고 밝혔다.

창설 70주년… 경찰 제복 10년 만에 바뀐다

● 내년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경찰 제복이 10년 만에 새롭게 바뀐다.

22일 경찰청은 경찰복제 종합 개선 사업에 착수해 내년 1월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색상과 디자인 등을 개선하는 대상은 정복, 근무복 상·하의, 점퍼, 파카 등 제복을 비롯해 정모, 근무모 등 제모, 계급장을 비롯한 부속물, 휘장 등 13종 31개 품목이다.

<메트로신문 공채 3기 수습기자 최종 합격자>

구무서	양소리	이보라
이지훈	정미나	정윤아
황찬수		

"노동시장 개혁,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박 대통령, "경기 회복 효과 체감위해 재정 확장기조 유지해야"

박근혜(사진)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은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이라며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거시정책과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민이 경기 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 등 거시정책은 확장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현재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정위 논의가 진행 중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가 대타협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서로서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고통 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여 이 대타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 아니라 경제 활력과 사회 활력을 저해한다"며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던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선진 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 비해 성장과 분배 모든 측면에서 성장하고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사이버 공격 막아라"… 진땀나는 훈련 22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본부 교육훈련센터 모의제어반에서 열린 '사이버공격 대비 모의훈련'에서 관계자들이 사이버 공격시 발전소가 안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23일까지 진행된다. /연합뉴스

개인정보 50만건 구해 대포폰 밀수출

개인정보 50만건으로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시켜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불법 구매한 개인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중국에 대포폰으로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변모(36)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강모(26·여)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50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구매한 뒤 이 가운데 휴대전화가 없는 무회선자 10만명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 151대를 개통, 중국으로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 등 범행을 주도한 위조책들은 인터넷에서 1만건당 40만~60만원에 개인정보 총 50만여 건을 사들여,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들에게 휴대전화기가 없는 '무회선자'를 골라내도록 했으며 이들은 무회선자 불법 조회 대가로 500명당 40만~100만원씩 받아 챙겼다.

이들은 범행 대상으로 고른 피해자 명의로 홀로그램까지 입힌 주민등록증을 위조,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를 만들어 내 휴대전화를 개통·밀수출해 1억7000만원을 챙겼다. /유주영기자

<원전자료>

"유출범은 고도의 전문가"

합수단 "국내외 IP 사용… 해커인지 확인 안돼"
미국 수사당국과 공조… 北 연계 가능성도 조사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도면 등의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22일 유출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이 미국에서 등록된 것으로 파악하고 미국 수사당국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이 인물은 전날 새벽 1시30분께 트위터에 4개의 압축 파일을 추가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고리 1·2호기 공기조화계통 도면을 비롯한 원전 관련 기술 자료들이다.

그는 트위터 글의 말미에 '하와이에서 원전반대그룹 회장, 미핵.'이라고 적어 자신이 해외에 있고 국내외IP를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유출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고도의 전문가로 추정되며 해커인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그가 이 원전 내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지난 15일 이후 이번 트위터 글까지 합쳐 4번째다. 범인 추정 인물은 지난 15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개인 블로그에서 'Who am I?'라는 문구로 자신을 소개한 뒤 월성 1호기 감속재 계통·배관설치 도면 등을 공개했다.

합수단은 범행이 북한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따져보고 있으며 미국 수사당국과 공조수사는 물론 북한 연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한수원 박인식 실장도 앞서 대남 공작설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실장은 22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고리원전 가동이 중단될 일은 없다"며 "(이 인물이)노리는 것은 사이버심리전이며 국민들에게 자극을 주고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이들을 범죄자이자 반국가세력으로 일축했다.

/유주영기자 boa@metroseoul.co.kr

양재천 얼음썰매장 개장 22일 개장한 서울 양재천 얼음썰매장에서 한 어린이가 썰매를 타고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썰매 대여료는 1000원이다. /연합뉴스

"우버 공유경제 훼손… 최대 100만원 포상"

서울시, 위법요소 지적

내년부터 우버택시 불법영업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을 포상한다는 것에 대해 우버 측이 반발하자 서울시가 우버의 위법 요소를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우버 신고포상금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부터 시민으로부터 우버 불법영업행위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시민은 이용 영수증, 차량번호, 운전기사 인적사항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우버 측이 '공유경제를 내세우는 서울시가 우버를 막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5가지 문제점을 들어 "우버가 오히려 공유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고급 콜택시 서비스인 우버 블랙과 일반 운전자도 운행할 수 있는 우버엑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시는 규정했다.

시는 기존 택시에 대해 자격관리제도와 검증제도, 보험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우버는 이러한 관리 영역에서 벗어나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을 적용받기 어렵고 우버 운전기사 자체도 신분을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우버는 정부의 택시요금 체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인 요금 변경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우버 이용약관은 모든 결제에 대해 환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유주영기자

가락시장 농산물 안전성 검사 1% 미만

서울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 중 농약 안전성 검사를 받는 상품이 전체의 1%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은 하루 167개 품목, 약 8000t으로 보통 10만 건을 훌쩍 넘는다.

농수산식품공사는 계절별로 많이 출하되는 품목에 집중해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 농약 잔류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공사는 대체로 경매 시작 한 시간 전에 안전성 검사를 하는데, 일부러 경매시간이 임박했을 때 농산물을 가져와 검사를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공사도 이러한 허점을 인정했다. 이병호 농수산식품공사장은 최근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경매 직전에 오는 농산물은 시료 채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랜덤 샘플링에서 표본이 되는 걸 회피하는 생산자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공사는 이와 관련해 늦게 들어온 농산물도 일부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검사 물량은 하루 10건 정도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검사 인력은 9명, 행정 인력은 1명에 불과하고 시약 등 소모품 구입비로 배정되는 예산도 연간 약 1억원 정도에 그치는 등 열악한 상황이다. /유주영기자

'국보법 위반' 코리아연대 압수수색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22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 찬양한 혐의 등으로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시민단체 '코리아연대'의 사무실과 조직원 9명의 주거지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50분부터 총 8곳에 수사관 10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씨 등 9명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연방통추', '범민련 남측본부' 등과 연대해 연방제통일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6명은 부부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2011년 1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조문목적으로 공동대표 A(38·여)씨를 밀입북시켰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유주영기자

80대 할머니 시신 든 여행가방 발견

인천의 한 빌라 인근에서 80대 할머니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이 발견됐다.

22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7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 인근에서 하교하던 고등학생 2명이 80대 할머니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할머니의 시신에서는 우측 옆구리와 목 등 모두 5차례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다.

또 둔기로 한 차례 맞아 머리 일부가 함몰됐으나 토막난 상태는 아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빌라 주변 CCTV를 확보하고 용의자를 쫓고 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metro HongK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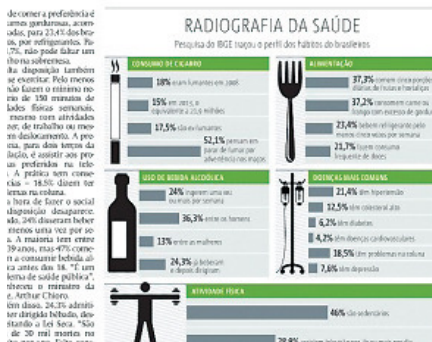
metro France

Marne : un camion rempl
Noël tombe dans un guet

크리스마스 장난감 도둑

크리스마스 장난감을 가득 싣고 가던 트럭이 강도 일행에 의해 탈취됐다. 크리스마스 장난감을 실은 트럭이 프랑스 A104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갑자기 다른 트럭이 뒤에서 배달 트럭을 들이 받았고 이어 다른 차량 하나가 앞을 가로막았다. 두 명이 트럭 문을 열어 운전자를 끌어내렸다. 그들은 훔친 트럭을 타고 도주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매년 소포나 위탁물이 도둑을 맞거나 물건을 배달하는 트럭이 범죄의 대상이 된다.

metro Brazil

e fumantes cai
5 anos, diz IBGE

금연 캠페인으로 흡연자 '뚝'

브라질에서 금연 캠페인 영향으로 흡연자 수가 줄어들었다. 브라질 지리 통계청(IBGE)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브라질 전체 인구 대비 흡연자 비율이 2008년의 18%에서 3%포인트 하락한 15%(2190만 명)를 기록했다. 조사는 1600개 도시의 8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남성 흡연자 수가(19.2%) 여성(11.2%)보다 많았으며 흡연자 연령대는 40세에서 59세 사이(19.4%)가 가장 많았다.

해양위성 통신으로 포르노 감상

대만 병사 야간 당직 중 딴짓… 인터넷 비용 수천만원 나와 발각

대만 병사가 해양위성 통신으로 '수천만원짜리' 포르노를감상하다가 걸렸다.

우추(烏坵)에 주둔하고 있는 사병 예(葉)모씨는 야간 당직때 해양위성장비가 테스트를 위해 인터넷에 연결된 틈을 타서 음란 사이트에 들어갔다. 그 결과 부대의 인터넷 비용이 100만 타이완달러(약 3500만 원)가 더 나왔다. 이번 사건은 대만 군인이 위성 네트워크로 음란 사이트를 본 첫 번째 사례다.

이같이 거액의 인터넷 비용이 나왔다면 그는 얼마나 많은 동영상을 감상한 것일까. 이 사병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포르노를 봤다고 밝혔다. 두 달 동안 매일 두 시간씩 봤다고 가정하면 120시간이다.

이 사병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인터넷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했다. 부대 측은 사건을 일단락 짓기 위해 청화텔레콤에 감액을 요청하는 한편 일부 비용은 부대 예산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대만 최대 통신 서비스 사업자인 청화텔레콤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투라야 위성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투라야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142개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이다.

위성통신은 주로 휴대전화나 네트워크 신호가 닿지 않는 지역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 청화텔레콤의 위성통신은 주로 등산객, 선박회사, 항해대원, 구조대원, 국제여행객 등의 긴급 통신을 위해 사용된다.

투라야의 인터넷 사용 비용은 초고속인터넷(ADSL)의 계산 방식과 비슷하다. 월 임대료에 통신비를 합산하는 식이다. 대만 군대가 기본형을 신청했다면 1MB에 205타이완달러(약 7000 원)다. 이 사병이 본 음란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았다면 한 시간에 600MB를 사용했을 것이다. 비용은 약 12만 타이완달러(약 420만 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비싼 포르노다" "다시는 보기 싫을 듯" "부대에서 비용을 지불하면 국민 세금에서 나가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리=조선미기자

metro Russia

На ВДНХ везут динозавров

높이가 무려 18m 거대 공룡 전시회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베데엔하 전시장에서 입체 공룡 전시회 '공룡의 도시'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베데엔하 전시장 부대표 고르디나 네브메르지츠카야는 "모스크바에서 처음 열리는 대형 공룡 전시회"라며 "주요 전시물을 아르헨티나에서 공수해 온 만큼 기존의 공룡 전시회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엄청난 규모의전시회장을 중생대 원시림으로 재현하는데 공을 많이 들였다"며 "다양한 공룡 이외에도 거대한 공룡 뼈와 화석 등을 전시해 관광객들은 영화 속에 온 기분이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시회 프로듀서 에세기예류 페나는 몇년 전 '살아있는 공룡' 전시회를 열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2008년부터 전 세계를 돌며 공룡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고, 아르헨티나의 고생물학자들과 복원 작업을 통해 살아있는 듯한 공룡 전시품을 만들었다. 이곳에 전시된 공룡 중에는 높이 18m의 거대 공룡도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어린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기가 높다. 고생물학자가 된 어린이들은 직접 원시림 속에 들어가 공룡발자국을 찾으며 공룡의 흔적을 조사한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니키타는 "숲 속에서 들어가자 무서운 공룡 울음소리와 새소리가 났다"며 "금방이라도 티라노사우르스가 나타날 것 같아 무서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어린이 크리스티나는 "책에서만 보던 공룡을 직접 보니 이렇게 큰 줄 몰랐다"며 "공룡 이름이 너무 길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리아 부야노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가슴으로 전하는 프로 만들고 싶어"

사람이야기

박혜령 대표

파일럿에서 시작한 SBS '식사하셨어요' 통해 공감
"대표는 일하는 사람 굶기면 안 된다"는 조언, 울림으로

■ 미디어 하얀소

요리 연구가 임지호와 개그우먼 이영자의 진행으로 매주 일요일 오전 시청자의 구미를 당기는 SBS '잘 먹고 잘 사는 법-식사하셨어요'(이하 '식사하셨어요').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미디어 하얀소의 박혜령 대표는 KBS2 '인간극장' PD 출신이다.

"'인간극장' 외주 제작사였던 '리스프로' 소속 PD였어요. 2008년 회사가 없어지면서 독립하게 됐죠. 다른 회사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작품을 제작할 때 자유롭고 싶었거든요. 미디어 하얀소를 2008년에 만들었고 저의 지인 임동창 피아니스트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얀소처럼 성실하고 청렴하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미디어 하얀소의 첫 작품은 'SBS 스페셜-방랑 식객'이다. 주인공 임지호와는 2006년 KBS2 '인간극장' '요리사 독을 깨다' 편에서 인연을 맺었다.

"2008년에 SBS에서 제안을 했어요. 처음 기획은 2부작이었죠. 그런데 1편 반응이 좋다 보니 1년에 2~3편씩 총 7편까지 시리즈로 방송됐어요. 이후 방랑식객을 주제로 MC까지 써서 대중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민인식 SBS 교양국 CP와 '방랑식객, 식사하셨어요?'를 만들었죠. 2012년 2월 설 특집 파일럿으로 김혜수·이휘재가 진행을 맡았어요. '인간극장' 권현정 작가가 함께 했고 '인간극장'에서 다루지 못했던 공군 조종사 이야기를 주제로 했죠.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족에게 금기처럼 여겨지는 상황을 극복하고 치유의 밥상을 만들자는 의도였어요. 파일럿 방송 후 민인식 CP가 정규 편성을 고민해보라고 했어요. 김혜수는 연기 활동을 해야 하니까 현실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진행자로 이영자를 떠올렸죠. 웃기는 모습이 강하게 남아있지만 저는 이영자의 따뜻한 면을 많이 봤어요. 눈물을 재미로 승화시키는 게 탁월한 개그우먼이죠."

미디어 하얀소는 '식사하셨어요?'를 통해 1인 기업에서 PD와 작가만 16명인 회사로 급성장했다.

"회식을 해도 규모가 달라요. (웃음) 운영자로서는 여러 고민이 많지만 저한테는 새로운 기회죠. 다행히 방송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선배들이 잘 인도해줬고 제가 선배가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가르쳐줬죠. 특히 리스프로 대표인 이동석 감독을 가장 존경합니다. 하얀소가 만들어졌을 때 이동석 감독이 '대표라면 네가 가져갈 걸 생각해선 안 된다. 막내들부터 챙기고 월급 못 줄 때는 회사를 접어야 한다. 대표는 일하는 사람 굶기면 안 된다'고 조언했어요. 제가 책임질 부분이죠. 고마운 건 제 사정을 제작진이 다 이해하고 동참해 준다는 점입니다. 혼자였다면 엄두 내지 못할 작업이죠. 다큐멘터리를 만들다 하루에 75분 분량 방송을 만드는 작업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박혜령 대표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꾸준히 하겠다는 각오다.

"선배들은 제 겉모습을 보고 시사 프로를 할 줄 알았다고 했었죠.(웃음) 그런데 휴먼다큐멘터리를 하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꼭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은 사랑에 관한 겁니다. 교육 다큐멘터리도 7년 째 저 혼자 만들고 있는데 언제 보여드릴 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식사하셨어요?'를 하고 있으니까 요리 다큐멘터리를 하나 더 해볼까도 고민 중이에요. 미디어 하얀소 대표로서 직접적인 감동을 주는 방송보다는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식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작할 프로그램도 이 부분만큼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방송 제작하는 사람들 다 힘들어요. 3D 업종이라 불리잖아요. 그런데 시청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선 버리고 공간 얻은 '무선청소기' 인기

다양한 장소에 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분화

올해 청소기 시장은 배터리 효율성과 흡입력을 높인 제품의 등장으로 무선 제품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무선청소기는 선이 없다는 점에서 좁은 틈새, 침대, 차량 내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출시된 LG전자 '무선 핸디스틱 청소기'는 11월 말 누적판매량 1만대를 돌파했고 삼성전자의 로봇청소기 '파워봇'도 출시 두 달 만에 4000대 판매됐다. 이에 청소기 제조업체들이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된 무선 청소기를 선보이고 있다.

LG전자·일렉트로룩스·필립스전자 등은 투인원(2-in-1) 청소기를 내놨다. 이 제품은 바닥 청소는 스틱으로, 좁은 틈새는 핸디형으로 사용할 수 있어 청소 영역이 넓은 것이 장점이다. 유선청소기는 전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용범위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무선청소기는 선반이나 집 외부의 자동차 내부 청소 등 보다 넓은 범위에서 청소가 가능하다.

로봇청소기는 이용자의 손이 닿기 번거로운 침대 밑이나 식탁, 책상 밑 등 다양한 공간을 스스로 청소한다. 특히 최근 출시된 제품은 유선청소기에 준하는 기능을 탑재하거나 작은 사이즈를 앞세워 보조 가전으로 인기다. LG전자의 로보킹은 한국 가정에 맞게 1.5㎝의 문턱을 넘어다닐 수 있으며 높이도 8.9㎝에 불과해 10㎝ 정도의 높이가 확보된 공간만 있으면 청소가 가능하다. 삼성전자의 파워봇은 유선 진공청소기에 탑재된 먼지 분리 기술인 '싸이클론 포스'가 적용돼 필터 막힘이 적고 강력한 흡입력을 유지한다.

LG로보킹(위)과 LG 무선 핸디스틱 청소기.

선을 버리면서 침대·자동차시트·소파 등을 청소할 수 있는 침구청소기 시장도 점차 성장하면서 다양한 제품으로 분화하는 추세다. 레이캅코리아는 지난 10월 기존보다 심플한 기능과 작은 크기의 침구살균청소기 '레이캅 라이트'를 출시했다. 침구류 관리에 필요한 매커니즘을 보다 단순화해 침구청소기를 처음 접하는 소비자까지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삼성 NX미니 새해다짐 이벤트

삼성전자는 내달 21일까지 '스마트카메라 NX 미니와 함께하는 2015 새해 다짐하기 이벤트'를 한다.

NX 미니를 구매한 뒤 제품 등록을 하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블로그에 거울 인증샷과 '새해에는 NX 미니와 함께'라는 문구를 활용한 새해 다짐을 적어 응모하면 된다.

응모 고객 가운데 2000명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15명에게는 바비브라운 미니 랩 & 아이 팔레트를 제공한다.

삼성 스마트카메라 NX 미니는 미니멀한 디자인과 2050만 화소의 고성능을 자랑하는 미러리스 카메라로 180도 회전식 디스플레이와 윙크샷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셀피는 물론 위피에 최적화된 성능으로 2014년 한해 동안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올 한해 NX 미니가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2015년에도 더욱 많은 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삼성 스마트카메라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

market index <22일>

코스피 1943.12 (+13.14)

코스닥 536.78 (+1.27)

금리(국고채 3년) 2.16 (−0.02)

환율(원·달러) 1096.30 (−3.20)

뉴스&뉴스

이야기로 미래산업 이끈다 2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이야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2014 스토리 마켓을 찾은 한 시민이 스토리 공모대전 수상작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VOD 본방 후 1주일내

● 우리나라 국민들의 TV프로그램 주문형비디오(VOD) 시청시간 분석 결과, TV 본방송 이후 1주일 이내 시청하는 시간이 전체 시청시간의 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방송된 10개 TV채널 42개 프로그램의 30일간 VOD 이용현황 분석 결과 총 3억4774만분의 이들 프로그램 VOD 이용시간 중 본방송 다음날 시청시간이 6022만분(17.3%)으로 조사됐다. 이어 2일 후가 2485만분(7.1%), 당일이 1644만분(4.7%), 3일 후가 1518만분(4.4%)이었다. 본방 이후 7일까지 시청시간 누적비율이 46.0%, 14일 후까지가 60.4%, 21일 후까지가 73.1%를 시청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영기자 ljy0403@

'학점계산기' 관심 집중

● 최근 대학 기말고사가 끝나고 성적이 하나둘씩 발표되면서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점계산기' 서비스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학점계산기는 '4.3점 만점'과 '4.5점 만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과목별 점수와 학점을 입력하기만 하면 평균 평점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시험이 끝난 대학생들이 자신의 과목별 성적을 예측한 후 최종 평점을 계산해보기 위해 사용한다.

단 포털 사이트 학점계산기의 결과는 일반적인 변환식을 적용한 결과로 정확한 변환 결과는 해당 학교의 학적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내년 고용·투자 CEO들에게 물었더니…

대기업 51% '긴축' 중기 46% '유지'

국내 주요 기업의 대다수 CEO가 현재 경기 상황을 '장기형 불황'으로 보고 있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2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최고경영자 경제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주된 경영기조에 대해 대기업은 '긴축경영'(51.4%)을 중소기업은 '현상유지'(46.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대기업은 지난해보다 '긴축경영' 기조로 응답한 기업이 증가(2014년 39.6%→ 2015년 51.4%)한 반면 중소기업은 감소(2014년 42.5%→ 2015년 31.5%)했다.

전체적으로는 '현상유지'(42.6%)로 설정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긴축경영'(38.0%), '확대경영'(19.4%) 순으로 조사됐다.

2015년 경영기조로 '현상유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3년 연속 긴축경영 기조를 유지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평가를 장기형 불황으로 평가한 기업은 66.7%로 지난해(43.5%)보다 크게 증가했다.

기업이 전망하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3.3%로 주요 기관들의 전망 수준인 3%대 후반(한국은행 3.9%, OECD 3.8%)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대기업 85.8%는 신규 투자 확대를 위해 진입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지주회사 규제'(28.6%), '계열사간 거래 규제'(22.9%) 개선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외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20.0%), '모호한 배임죄 적용(11.4%)'도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한편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적극적 규제완화'(21.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16.1%),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14.5%), '투자 및 창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13.4%) 순이었다.

◆내년 고용 올해와 비슷

2015년 투자·고용계획을 묻는 설문에 올해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올해 대비 내년 투자 규모는 '올해 수준'으로 시행하겠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높았다. '축소'(25.5%)하겠다는 응답이 '확대'(23.7%)하겠다는 응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채용 규모 또한 '금년 수준'이라는 응답이 60.4%로 가장 높았다. '축소'를 계획하는 기업이 26.8%, '확대'하겠다는 기업이 12.9%로 집계됐다.

이처럼 투자와 고용계획 모두 '확대' 보다는 '축소'를 계획하는 비율이 높았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로 내년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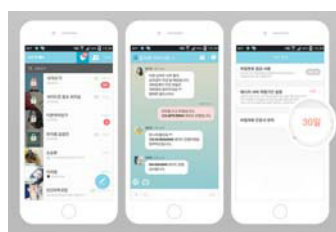
돼지고기 가격 고공행진에 공급 사상최대 22일 서울의 한 마트 정육 매장에 최근 가격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국내산 돼지고기가 진열 돼 있다. 올해 돼지고기는 가격이 성수기와 비수기를 가리지 않고 고공행진을 지속하자 공급과 소비 물량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사생활 침해 논란 IT업계 보안 강화 나서

카카오톡·네이트온 비밀채팅 기능 도입

이용자 사생활 보호가 IT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보안 강화 서비스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카카오톡 메시지 유출로 시작된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가 가입자 이탈로 이어지자 대책에 나선 것이다.

22일 포털·메신저 업계에 따르면 다음카카오와 SK커뮤니케이션즈는 각각 자사가 운영하는 메신저 네이트온과 카카오톡에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적용했다. 이 기술은 암호를 해제하는 키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개인 단말기에 저장함으로써 검찰의 서버 압수수색에도 대화내용을 원천 차단시킨다. 종단간 암호화 기술은 현재 메신저 서비스 중 가장 보안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연종 네이트온 팀장은 "사용자들의 정보보호 걱정을 덜기 위해 비밀대화 기능을 출시했다"며 "이밖에 이용자가 메시지를 서버에 저장하는 기간을 최소 3일부터 최대 180일까지 직접 설정할 수 있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네이트온이 새롭게 적용한 '비밀대화'와 '메시지 서버 저장 기간 설정' 기능의 예시. /SK커뮤니케이션즈

다음카카오는 23일 프라이버시 정책의 전문적 검증을 위한 '프라이버시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앞서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검열과 검찰 메시지 제공 문제로 큰 진통을 겪었다. 잇따른 경찰 조사 속에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아동 음란물 유포 방치 혐의까지 더해져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한편 네이버는 피싱 피해를 막는 '나만의 로그인 테마'를 상용화했다. 피싱은 가짜 홈페이지로 이용자를 유도해 개인 정보를 빼돌리는 사기수법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이 선택한 이미지로 로그인 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로그인 화면에서 설정한 배경 화면이 보이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바로 가짜 사이트로 의심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기존의 주소창 접속 주소나 보안인증서 자물쇠 등을 통해 가짜 사이트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지만 직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네이버는 일회용 로그인, 해외지역 로그인 차단, 국내 타지역 로그인 차단, 새로운 기기 로그인 알림 등의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장윤희기자 unique@

'13월 보너스' 없다?

내년 환급 9000억 감소

내년 2월에는 '13월 보너스'를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는 직장인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국회에 제출된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9조8700억원으로 올해보다 8.1%(8761억원)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10조원을 밑도는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는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는 납입액의 12%, 의료비·교육비는 지급액의 15%, 기부금은 금액에 따라 15~2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이지만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 고소득층일수록 환급받는 세금이 줄게 된다. 오히려 추가 과세액을 토해내는 일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연금저축, 주택청약, 소득공제장기펀드 등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충고하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은퇴설계시장 경쟁 본격화

기업·우리·농협… 신상품 잇따라 선봬

주요 은행들이 보험사의 전유물에 가까웠던 은퇴설계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과거 은퇴설계시장은 증권사와 보험사의 텃밭이었다. 그러나 저금리 장기화로 성장 동력을 잃은 은행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은퇴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100세 시대를 대비한 은퇴설계 서비스로 'IBK평생설계 서비스'를 출범하며 은퇴시장 공략에 나섰다. 금융 지원과 생활 지원 솔루션을 구분해 재무적·비재무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IBK평생설계는 30·40대 은퇴 준비 고객, 50대 은퇴 예비고객, 60대 이상 은퇴 고객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타기팅을 통해 은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은행이 내놓은 노후 대비 대표 상품으로는 'IBK꽃보다청춘통장'이 있다. 이 상품은 장년층 여행에 대한 니즈를 반영해 금리 우대와 각종 여행 관련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우대금리는 ▲계약 만기에 만 60세 이상 ▲여행 관련 증빙서류 제출 ▲기업은행 신용(체크)카드 이용시 각각 0.1%포인트를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은 지역 밀착형 고객 친화사업 전략을 통해 은퇴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 출범 당시 2조 735억원이었던 농협은행의 퇴직연금 잔액은 올해 8월말 현재 4조 4410억원으로 두배 이상 급증했다. 시장 점유율도 7.1%에서 9.2%로 확대됐다.

농협은행은 영업점 전문 상담인력인 '은퇴설계 카운셀러'를 연초 350명 수준에서 10월 말 현재 900명으로 확대 배치했다. 또 직원 상담능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은퇴시장 동향, 은퇴설계 상담스킬 등을 포함한 퇴직연금 전문가 과정을 개설했다.

우리은행은 '우리청춘100세'를 통해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입출식 통장 '우리평생파트너통장'과 '우리평생파트너예·적금'을 결합한 '우리청춘100세 상품패키지'를 통해 종합적으로 은퇴자금 마련부터 자금 운용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직장인부터 연금을 받는 은퇴자까지 평생 이용이 가능하다. 급여나 연금이체시 매일 잔액 1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연 2.0%의 금리가 적용되며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월 10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중은행들이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는 몇 안되는 시장으로 은퇴금융시장을 손꼽고 있어 앞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NH농협금융 임종룡 회장이 22일 오전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협금융 '자산운용 역량 강화방안' 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농협금융 제공

"농협금융 자산운용 명가로"

임종룡 회장 "내년 목표이익 9050억원"

NH농협금융지주가 대표투자상품 '올셋(Allset)'을 내놓고 최고투자책임자(CIO)체제를 도입하는 등 자산운용 역량 강화에 나섰다.

22일 농협금융은 서울 전국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농협금융 경영전략'과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임종룡 농협금융 회장은 "금융그룹의 핵심 경쟁력은 제조-유통-운용의 균형있는 경쟁력 확보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며 "농협금융은 내년부터 자산운용 부문 역량 전반을 혁신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금융회사의 제1의 목표는 충분한 수익성을 내는 것"이라며 "'양'과 '질'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위치에 올라설 수 있도록 수익성 강화를 경영의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구체적인 전략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표 투자상품 '올셋(Allset)'과 은행, 증권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복합점포도 내년에 10개가량 개설하겠다"며 "농협중앙회 산하의 각 계열사가 공동 사업을 펼치고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범농협카드'는 내년 3월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목표이익은 9050억원으로 올해 추정이익인 8000억원보다 10% 이상 늘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농협금융은 ▲CIO 도입 ▲은행·보험 자산운용 프로세스 개선 ▲NH-CA자산운용 육성 ▲대표 투자상품 출시 등 4대 대표 방안을 기준으로 자산운용 시장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수익성 제고와 새로운 신뢰구축'을 경영목표로 삼고 ▲은행·보험·증권 M/S 증대 등 핵심역량 강화 ▲시너지 3대 아이콘설정(신복합 점포·대표투자상품·범농협카드) ▲내실성장 위한 경영체질 강화 ▲신뢰제고·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IBK기업은행, 탈북민 운영 카페 개점 IBK기업은행은 22일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탈북 청년이 운영하는 카페 '레드체리 1호점'을 개점했다.(왼쪽부터) 이재범 서강대 교수, 우기섭 전 여명학교 교장, 권선주 기업은행장, 강창희 전 국회의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박요셉 제이협동조합 이사장, 김승남 ㈜조은시스템 회장, 한미미 YWCA 이사가 개점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업은행 제공

유안타, '위노차이나랩' 출시

유안타증권은 22일 중국 본토의 상해A주 및 홍콩H주에 투자하는 랩어카운트 상품인 '위노차이나랩(We Know China Wrap)'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중국 시장 내 핵심 테마로 부상하고 하고 있는 미래 성장주와 정책 수혜주, 고배당주에 투자한다.

주요 투자 대상은 ▲중국 내수를 발판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IT·인터넷·유통·소비 업종 ▲일대일로(一帶一路·실크로드경제벨트, 21세기 해상실크로드)·자유무역지구 등 국가 전략관련 산업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 등이다.

랩 운용팀은 투자 대상 종목군 선정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시장 대응을 위해 현지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들과 매주 컨퍼런스콜(다중전화회의)을 실시해 긴밀한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이슈 발생시 신속한 정보 교류를 통해 해외 투자의 어려움인 '정보 제한'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종목 선정은 상해·홍콩·대만 리서치센터의 현지 애널리스트가 투자전략과 중장기 추천 종목을 제공하면 국내 리서치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랩 운용팀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또 환차익이 비과세이며 매매차익은 분류과세 적용을 통해 양도소득세 22%만 내면 되는 등 절세효과가 있다.

매매차익은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최소 가입금액은 3000만원이다.

/김현정기자 hjkim1@

LIG손보 매각 연내 승인할까?

금융위 내일 정례회의 상정… 업계선 '신중론' 제기

금융위원회가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 승인안을 상정한 가운데 이번 매각이 연내에 매듭 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인수가 마무리되면 KB는 대형 손보사를 자회사로 둔 첫 금융지주사로 신한금융을 제치고 자산규모 1위에 오를 수 있지만 업계 일부에선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24일 정례회의에서 KB의 LIG손보 인수 승인안을 상정했다.

이번 승인건 상정은 지난달 27일부터 약 2주간 실시한 금감원 검사팀의 KB 현장점검 결과,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앞서 KB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받은 지배구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외이사 전부가 사퇴를 결정하는 등 LIG손보 인수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KB가 자산 22조의 LIG손보 인수에 성공하면 신한금융(401조)을 넘어 규모 1위의 금융지주사에 오를 수 있다.

또 그룹 내 순이익의 80%를 차지하는 KB국민은행의 비중이 낮아져 사업 다각화 전략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도 "LIG손보를 인수해 은행 비중이 줄어들면 은행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은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KB의 수익구조 다각화를 위해서도 LIG손보 인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카슈랑스 외에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계열사 KB생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손보업계 4위인 LIG손보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고 보험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

또 30만 곳으로 추산되는 KB국민은행의 여·수신 거래 기업고객에게 기업보험을 비롯한 일반·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을 기업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이번 안건 승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0월 KB금융이 청와대에서 지지한 하영구 현 은행연합회장 대신 내부 지지가 높은 윤종규 회장을 선임한 데 따른 '괘씸죄'가 아직 유효하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최근 KB가 사외이사 9명 전원이 사퇴를 결정하는 등 LIG손보 인수를 위해 총력을 다하면서 당국의 승인 지체 명분이 약해졌다"면서도 "정부 내외에서는 LIG손보를 타 금융사에 재매각을 추진하는 설까지 나돌고 있어 올해 안에 승인이 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연말정산 앞두고 소장펀드 '눈길'

62개 상품에 1818억원 유입… 40%까지 소득공제 '절세족' 인기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안에 가입하면 펀드에 넣은 돈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족'의 눈길을 끈다.

22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으로 소장펀드 62개에 들어온 자금은 1818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치투자를 내세운 몇몇 특정 펀드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가장 많은 자금이 몰린 펀드는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주식)종류C'로서 전체의 3분의1에 가까운 632억원이 유입됐다.

이어 '신영마라톤소득공제자(주식)C형'과 '한국밸류10년투자소득공제(채혼)종류C'에 각각 259억원, 221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전체 소장펀드의 설정 후 19일까지의 수익률은 0.25%를 기록했다. 올 들어 대형주가 부진한 가운데 중소형주와 채권이 선방하고 배당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소장펀드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았다.

올해 3월 소장펀드가 출시된 이래 가장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동양중소형고배당장기소득공제자1(주혼)ClassC'로 8.95%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한국투자네비게이터소득공제전환자(주식)(C)'와 'KB가치배당소득공제전환자(채혼)C클래스'가 각각 6.87%, 6.45%로 뒤따랐고 'KTB한중장기소득공제자[주식]종류C'는 6.41%였다.

소장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매달 최고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5년 이상 납입하면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연말까지 새로 계좌를 트고 600만원을 넣으면 연 24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소장펀드의 세제 혜택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6.6%에 이른다는 측면에서 일반 펀드 투자에 비해 '+α'를 노릴 수 있다.

장기투자 상품이란 측면에서 가입할 때 투자전략이나 가입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하거나 주식형과 채권혼합형 등 유형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엄브렐러형 펀드에 가입하는 전략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또 직장 월급 외에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추후 '가입 부적격자'로 분류돼 환급받은 세금과 함께 가산세를 추징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봉급 외 소득이더라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로서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된다면 소장펀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하므로 펀드 가입시 유형과 수익률 등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신한은행은 22일 산업도시인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시에 지점을 열었다고 밝혔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시의 푸네지점 개점을 앞두고 임상진 푸네(Pune) 지점장(앞줄 왼쪽에서 4번째)과 현지직원들이 푸네지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신한 푸네지점 개점 "인도 시장 공략 시동"

신한은행은 22일 인도지역의 현지화 전략 실행을 위해 산업도시인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시에 지점을 열었다고 밝혔다.

인도 뭄바이 남동쪽 200㎞에 있는 푸네시는 인도 경제중심지인 뭄바이의 배후 산업단지로 벤츠와 GM 등 주요 자동차 기업과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발달해왔다.

특히 이 지역은 최근 제조업 전반에 걸친 공단이 조성되며 포스코와 LG전자,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해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996년 국내 은행 최초로 뭄바이에 진출한 이후 뉴델리지점과 벨로르지점(첸나이) 개설을 통해 주요 경제 거점을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네트워크(Triangle-Network)'를 구축해 왔다.

이번에 개점하는 푸네지점은 인도지역 내 진정한 현지화를 위해 개설준비부터 인도 현지와 외자기업 유치를 준비했다고 신한은행 측은 설명했다.

신한은행 푸네지점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앞선 고객서비스를 활용해 인도지역에서 새로운 개척자 정신을 구현해 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번 푸네지점 개점으로 16개국 70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하게 됐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핀테크·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위, 내년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에 초점

정부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의 한 축으로 잡았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발표한 '2015년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IT기술과 금융의 융합 등을 통해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위축돼 있는 금융업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경기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위는 핀테크를 내년 중점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고 책임부담을 명확화하는 등 규제 패러다임을 통해 혁신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핀테크 지원센터 설치와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확대 등으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해 금융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여건도 조성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IT·금융 융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 등을 거쳐 추진키로 했다.

증권과 보험 등을 이용하는 고객의 자금이체를 위한 편의성도 커진다. 지금까지 증권의 경우 법인고객의 자금이체가 허용되지 않았고 연금보험 등은 공과금이체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기업신용공여 규제도 완화된다. 먼저 기업신용공여 증가 추이 등에 따라 일반·기업 신용공여 규제를 자기자본 10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상향해 투자금융(IB)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 프라임브로커의 신용공여 범위도 확대한다. 이는 헤지펀드 대상 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전담중개업무의 신용공여 범위는 '증권 이외의 투자(commodity 등)'까지 넓어진다.

대형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는 허용하고 외화차입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환업무 범위 또한 대폭 커진다.

특히 금융위는 외국환은행의 업무중 소액의 송금·수취 업무만을 취급하는 외환송금업을 도입하고 해외 외환전산망을 갖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모험자본 활성화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자금 모집단계에서는 사모펀드 운용자 요건을 완화하고, 사모투자재간접펀드·적격투자제도 도입 등으로 운용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백아란기자

교보생명, 7년 연속 'A2' 신용등급

교보생명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로부터 7년 연속 'A2' 신용등급을 획득했다. 등급전망(Rating Outlook)은 기존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용평가는 보험사의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리스크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험금지급능력 평가(Insurance Financial Strength Rating)'로 'A2' 등급은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뱅크오브아메리카·시티은행과 같은 수준이다.

등급전망의 경우 '긍정적'은 향후 신용등급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률차익이 안정화되는 등 우수한 수익성과 재무안전성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된 결과다.

/김형석기자 khs84041@

꿈과 희망 키워주는 '작은도서관' 개관 KB국민은행이 22일 김포시 운양동에서 '고맙습니다 운양 작은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유영록 김포시장, KB국민은행 오경록 인천북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지역주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 오경록 인천북지역본부장(왼쪽 여섯번째), 유영록 김포시장(왼쪽 일곱번째), 김수연 사단법인 작은도서관만드는 사람들 대표(왼쪽 다섯번째). /KB국민은행 제공

2015년 경제정책방향

기초가 튼튼한 경제
- ▶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 ·재정건전성 강화
  - ·재정효과성 향상
  - ·공공기관 정상화
- ▶ 노동 유연성.안정성 제고
  - ·노동시장 구조개혁
  -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 ·여성경활참가 확대
- ▶ 인력수급 불일치 완화
  - ·현장맞춤형 인재양성
  - ·교육시스템 개편

통일시대 대비
- ·남북 경협 · 역량 강화 · 생활 지원

역동적인 혁신 경제
- ▶ 금융 역송성 제고
  - · 경쟁촉진
  - · 외환규제 개선
  - · 모험자본 활성화
  - · 정책금융 효율화 등
- ▶ 투자 의욕 고취
  - · 대규모 투자지원
  - · 규제개혁
  - · 시장경제 질서확립
  - · 외국인 투자 등
  - · 중소기업 지원
- ▶ 산업경쟁력 강화
  - · 신정장동력 확충
  - · 주력산업 혁신
  - · 해외진출 촉진
  - · 농수산업의 6차 산업화 등
  - · 서비스업 육성

내수 · 수출 균형 경제
- ▶ 확장적 거시정책
- ▶ 소비 여건 개선
  - · 소득 향상
  - · 배당 확대
  - · 연금보장 강화
  - · 일자리 확대
  - · 생활물가 안정
- ▶ 임대시장 활성화
  - · 민간 주택임대산업 육성
  - · 수요기반 확충
- ▶ 리스크 관리 강화
  - · 가계부채 관리강화
  - ·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 · 자본유출입 대응

연합뉴스

‘규제총량제’ 내년 전면시행

‘리스크 관리 3종 세트’ 선제 대응 경제 체질개선 나선다

정부가 내년 내수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통한 시장경제 질서확립에 나선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규제개혁 핵심 카드로 규제총량제와 규제기요틴(단두대)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를 신설·강화 시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총량제를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2017년까지 규제를 20% 감축한다는 목표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경제주체들의 체감도 제고와 성과 가시화를 위해 투자·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규제기요틴도 추진한다.

시장경제 질서확립을 위해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개선으로 체감성과를 높이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단속 강화와 위반시 엄중조치에도 나선다. 특히 하도급 대금지급과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민관 태스크포스(TF)의 주기적 현장점검(6개월)을 거쳐 2월과 8월에 결과를 각각 공개한다.

외국인 투자와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세감면 시 투자 연동비율을 낮추고 고용에 비례한 한도를 상향한다. 고용효과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은 서비스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입시지원제도 및 현금지원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또 유턴 기업에 대한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허용비율을 확대하고, 병역 특례요원 배치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가계부채, 기업구조조정, 자본유출 가능성 등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질적 구조개선 등을 통한 위험요인 사전 관리에 나선다.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고 주금공은 이를 매입, 유동화해 가계의 만기상환부담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에 대한 최소의무상환비율도 소득수준과 연계해 차등 적용시켜 부담을 줄인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 시 절차 특례 등을 패키지로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도 만들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2015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최경환(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산업 육성 전세난 해결

새해 주택부문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민간 주택임대산업 육성이다.

민간을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늘림으로써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민간 임대주택 산업 육성 방안은 규제 개혁과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우선 규제 개혁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미매각 토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전환해 싼값에 내놓는 것도 검토 중이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도 국민임대주택 등 건립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최소 해제 면적이 20만㎡ 이상이었다.

다만 공익 목적일 때는 이 최소 면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공익적 목적에 임대주택 건립을 포함시켜 소규모라도 임대주택 건립 용도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산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자금 여건이나 부동산 경기 때문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에 주택기금 등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기금을 융자해준다는 것이다.

세제 부문에서는 상근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에 대해 법인세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매입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10~40%)를 건설임대주택으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도 75%까지 높이기로 했다. 최근 2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나 감면 폭을 더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시장이 필요로 하는 주택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흐름을 감안해 대규모·소규모 공동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도심형 생활주택, 도시형 레지던스, 자산 축소형 임대주택 등을 공급키로 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중기에 빌려준 대기업 생산설비 비과세

서비스업 세제·정책금융 지원도 확대

중소기업에 빌려주거나 설치한 대기업의 생산설비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관광호텔이나 면세점과 같은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와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중소기업, 농업,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여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대여하거나 설치한 생산설비를 기업소득 환류세제 상의 투자로 인정해 관련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 8월에 발표한 ‘5+2’(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소프트웨어+물류·콘텐츠) 유망 서비스업 육성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단계로 이들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으로 해외 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해 수출·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금융 분야는 원-위안화 은행간 직거래 시장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위안화 금융중심지 구축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펀드, 개인연금 등에 금융상품자문업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종합관리계좌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디자인, 광고, 부동산, 지식재산, 컨설팅 등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표준산업분류 정비를 토대로 제조업과 차별이 없도록 서비스업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설비투자 비중이 낮은 서비스업 특성을 감안해 고용창출·인적자원 개발 등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성훈기자 zen@

‘주식 큰손’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

500조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 지배구조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주요 정책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 강화가 개편안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운용조직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은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이 매년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큰손으로 불리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 지배구조·개편 논의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다. 당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 방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됐다.

내년 시행될 국민연금 기금운영개편안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연구용역 중이며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희기자 unique@

정규-비정규직 격차 줄인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22일 발표된 ‘2015년 경제정책전망’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줄이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고용보호 격차, 불합리한 차별 등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경제의 생산성이 둔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시·지속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 형태별 특성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 완화도 추진한다.

/장윤희기자

태블릿 시장 속도경쟁 본격화

삼성-LG전자 LTE지원 제품 잇따라 출시
소니·에이수스 등 글로벌 업체도 뛰어들어

국내 태블릿PC시장에 속도경쟁이 시작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소니, 에이수스 등 스마트기기 제조업체들이 기존 와이파이 모델에서 벗어나 LTE 지원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출시되는 제품은 이전과 달리 LTE지원 라인업이 늘어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가장 빠른 광대역 LTE-A를 지원하는 제품까지 출시했다. 지난달 3일 10.5인치 '갤럭시탭S 광대역 LTE-A' 신제품을 선보였다. 국내 출시된 제품 중 유일하게 이통3사의 광대역 LTE-A를 지원, 기존 LTE보다 3배 빠른 속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용량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도 빠르게 다운받을 수 있다. 가격은 79만9700원이다.

반면 LG전자는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제품을 출시한다. LG전자는 LTE 태블릿 'LG G패드8.0 LTE'를 LG 유플러스를 통해 24일 국내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출고가는 33만원이다. 이 제품은 LTE 통신모듈을 탑재해 와이파이 없이 데이터망을 통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1.2㎓ 쿼드코어 퀄컴 스냅드래곤 400 프로세서를 탑재했다.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4.4.2 킷캣이다. 스마트폰과 연동해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Q페어 2.0', 태블릿 화면 위 아래로 나눠 두 개의 앱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듀얼윈도우' 등의 기능도 있다.

소니가 최근 선보인 '엑스페리아Z3 태블릿 콤팩트'도 LTE를 지원한다. 이 제품의 경우 속도 뿐만아니라 다양한 확장성까지 갖추고 있다. PS4 리모트 플레이를 통해 소니 PS 생태계에 접속할 수 있다. 제품 가격은 LTE 모델 59만 9000원, 와이파이 모델 49만 9000원이다.

이 외에도 에이수스는 LTE 지원 '미모패드8 LTE'를 29만 9000원에 선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태블릿PC는 일반 가정보다 외부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른 모바일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LTE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며 "내년부터 태블릿PC 시장도 LTE 제품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성운기자 ysw@

투명우산·공학교실·모비스 숲

현대모비스 특화된 사회공헌 눈길
산업 특징 알리고 이웃사랑도 실천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으로서 특화된 현대모비스의 사회공헌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투명우산 나눔 캠페인, 과학영재 육성을 위한 주니어 공학교실 운영, 지역사회 환경개선 프로젝트인 '현대모비스 숲 조성' 등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투명우산 나눔 캠페인=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투명우산 나눔'은 현대모비스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2010년부터 매년 투명우산 10만 여개를 제작해 전국 150여 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이같은 캠페인에 나선 것은 비오는 날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은 평소보다 높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주의력과 판단력이 어른보다 떨어져 비오는 날은 우산으로 인한 시야 확보가 힘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한층 높다. 여기에 바람까지 심하게 불면, 우산이 시야에 들어오는 차량이나 설치물을 가려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현대모비스가 제작한 '어린이용 특별 우산'은 경량 알루미늄과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해 가볍고 튼튼하다. 찢겨지거나 거센 바람에 휘거나 부러질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우산이 불빛을 반사해 우천으로 어두운 낮 시간 또는 밤길에 운전자가 우산을 쓴 어린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손잡이엔 비상용 호루라기를 달아 위급상황을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과학영재를 육성하는 주니어 공학교실=실습을 통해 기초적인 과학원리를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는 주니어 공학교실도 인기다.

과학영재를 육성시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주니어 공학교실은 2005년 경기도 용인시 기술연구소 인근에 있는 교동초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하면서 첫 발을 내디뎠다. 현재는 연구소 인근뿐 아니라 현대모비스 사업장 인근의 초등학교에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특히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16개 시도에서 1회씩 총 16회 이동과학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주니어 공학교실'도 진행한다. 학생들과 학부모, 초등학교 관계자들의 주니어공학교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10년간 100억 투자해 조성하는 현대모비스숲=현대모비스는충북 진천군, 자연환경국민신탁과 함께 '모비스 숲' 가꾸기 사업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숲 조성에 들어간다. 앞으로 매년 10년간 100억 원을 투자해 진천군 초평호 인근에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숲'을 테마로 108헥타르(ha·약 33만평) 규모의 숲을 조성하는 것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모비스 숲' 가꾸기는 지역민과 함께 지역사회의 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활용하는 프로젝트"라며 "앞으로도 이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탄소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부품 개발에도 앞장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친환경 경영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구석구석 영상으로 확인"

다음 지도 로드뷰 자동주행 서비스

다음 지도가 로드뷰 자동주행 기능을 제공한다.

다음카카오는 예상 주행로를 영상으로 제공하는 '로드뷰자동주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로드뷰 자동주행은다음 지도의 실시간 길찾기와 360도 파노라마 로드뷰를 연계한 서비스다. 다음 지도에서 자동차 길찾기 시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한 후 로드뷰 자동주행을 선택하면 도로 구석구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주용환 다음카카오 로컬서비스개발셀장은 "기존의 길찾기 경로 안내가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문제 의식이 있었다.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로드뷰 자동주행 기능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해외여행객에 무료 와이파이 KT는 겨울방학과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2월 28일까지 선착순 2만명에게 '폰(Fon) 와이파이 네트워크' 15일 무료이용권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KT 제공

분양시장 좋다지만… '고분양가' 온도차

양극화 속 고가전략 상품따라 희비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분양가도 덩달아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전처럼 굳이 '착한 분양가' 전략을 펼치지 않더라도 쉽게 아파트를 팔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같은 고분양가라도 상품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부산 업체 동일이 수도권에 진출해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7블록에서 분양한 '고양삼송 동일스위트1차'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고양 삼송지구는 한때 김포·용인 등과 함께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지역이다. 하지만 서울 전세난, 은평뉴타운과 불과 2정거장밖에 차이 나지 않는 입지, 9·1대책에 따른 신규 택지지구 지정 중단 등의 영향으로 기존 미분양은 모두 소진된 상태다.

이제는 일부 아파트에 1000만~2000만원 정도의 웃돈까지 붙었을 만큼 분위기가 호전됐지만 '고양삼송 동일스위트1차'는 전체 968가구 중 여전히 500가구 정도가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진 입지에 비해 비싼 분양가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 아파트는 3.3㎡당 1000만~1100만원대로 분양가가 책정됐다. 인근 '고양삼송 우남퍼스트빌'이 850만~960만원대, '삼송1차 아이파크'가 980만~1050만원대에 공급된 것에 비해 최대 100만원 이상 비싼 수준이다.

삼송지구 A부동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지하철역이 가까운 남삼송보다 북삼송의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이 단지는 북삼송 안에서도 끄트머리에 지어진다"며 "발코니 확장비에 중도금 대출 이자까지 포함하면 실질 분양가도 3.3㎡당 1200만원이 넘어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분양 관계자는 "150명 정도가 투입돼 조직분양, 일명 떼분양에 들어간 상태"라며 "브랜드가 유명하지도 분양가가 싸지도 않은데, 계약조건도 중도금 이자후불제라 무이자로 변경되면 생각해 보겠다는 고객들이 대부분"이라고 귀띔했다.

견본주택 내부 전경.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비슷한 시기 대우건설이 경기도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에서 공급한 '양주신도시 푸르지오 2차분'도 50% 안팎의 계약률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전용면적 59㎡(25평형) 소형으로만 구성, 확장비 포함 분양가를 비교적 저렴한 2억1000만원대로 낮췄지만 일대 같은 주택형의 아파트와 비교해 여전히 2000만~3000만원 높은 수준이다.

인근 B부동산 대표는 "옥정지구 옆 고읍지구 아파트 84㎡(33평형)가 2억2000만~2억3000만원에 거래된다"며 "면적이 작다 보니 전체 분양가 수준도 낮은 편이지만 주변보다는 많이 비싸 권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분양 관계자는 "현재 절반 정도 계약됐는데 곧 조직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러면 곧 계약을 마무리 짓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앞서 상반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서울 강동구 고덕시영을 재건축해 공급한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역시 전체 일반분양 가구수 1114가구의 절반이 넘는 750가구가량이 아직 미분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분양시장 최대어로 꼽힌 위례신도시와 하남미사지구 사이에 지어지면서도 최대 50% 비싼 분양가가 발목을 잡은 것.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950만원에 책정된 반면, 위례신도시와 하남미사지구는 1800만원대와 1300만원을 전후해 가격이 매겨졌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재건축아파트에 비해 신도시아파트가 평면·상품구성이 좋기 마련"이라며 "여기에 입지는 비슷한데, 가격경쟁력까지 위례나 미사지구에 밀리다 보니 래미안힐스테이트가 외면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서산장학재단, 학생 623명에게 장학금 성완종(경남기업 회장) 서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2014년도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서산·태안·당진지역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경남기업 제공

'인구증감' 반대로 가는 지방 아파트값

인구감소로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 아파트시장이 이와 전혀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4년 지방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세종시', 가장 많이 유출된 곳은 '대구광역시'다. 반면 같은 시기에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세종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대구광역시'로, 인구증감과 아파트가격이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

지방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아파트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하고,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 아파트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아파트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 정책, 경제, 금리 등 다양하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인구요인보다는 지역 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확인된다.

2000~2014년(최근 15년) 장기 연평균 입주물량을 보면 대구는 1만4308가구, 세종시는 2108가구다. 2014년에 입주한 물량과 연평균 물량을 비교하면 대구는 35%감소, 세종시는 582% 늘어났다. 결국 인구의 총량이 늘고 주는 것 보다는 초과(미달)공급이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인구가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주택수요가 줄어드는 사실은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로 볼 때 논쟁의 여지가 적다. 다만 국내의 경우는 가구구성이 1~2인으로 세분화 되는 가구분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당장은 인구감소가 주택가격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아직 영·유아의 인구감소만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택의 주요 수요층인 30~50대의 생산가능 인구는 유지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인구증감에 의해 당장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보다는,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인구감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김두탁기자 kimdt@

내년 1분기 3만8662가구 집들이

웃돈 제로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2015년 1분기 전국적으로 3만8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다. 동탄2신도시를 포함한 경기지역 입주 물량이 4분의 1가량 차지한다.

22일 부동산포털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새해 1분기 65개 단지, 3만8662가구가 집들이에 들어간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물량이 1만127가구에 이른다. 반면 인천은 입주 아파트가 아예 없고, 서울도 1611가구에 불과하다.

지방에서는 5대광역시가 9792가구, 그 외 지역은 1만7132가구다.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웃돈이 형성된 아파트는 서울 마포구 용강동의 'e편한세상 마포3차'로 조사됐다. 전용면적(이하 동일) 84㎡에 1억5000만원, 115㎡에 1억~1억2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는 '계룡리슈빌'(A-16블록), '백조예미지'(A-17블록), '호반베르디움'(A22블록), '우남퍼스트빌'(A15블록) 등 8개 단지, 5886가구가 주인을 맞이한다. 이 중 '우남퍼스트빌' 84㎡ 프리미엄이 7000만~8000만원으로 가장 높다.

이 외 위례신도시 첫 민간분양 아파트인 '송파 푸르지오' 138㎡가 5000만~1억원, 광교신도시 '호반 베르디움' 138㎡가 최고 1억원까지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광역시 등 지방에서는 경남 거제시의 '엘크루 랜드마크' 111㎡가 분양가보다 최고 1억원이 올랐다. 거제시 내 10년 만에 공급된 아파트로 분양 당시부터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단지다.

이에 반해 세종시 입주 프리미엄은 급락했다.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물량도 많아서다. 1분기 7개 단지 4768가구가 입주하는데, 웃돈이 붙지 않은 단지들도 있다. 1-3생활권 '중흥S클래스센텀파크2차'(M4블록) 110㎡가 1500만~5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붙었다.

권일 닥터아파트 분양권거래소장은 "입지와 분양가에서 경쟁력을 갖춘 단지가 역시 프리미엄도 많이 붙었다"면서 "반면 입주 물량이 많은 동탄2신도시나 세종시는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HAN'S DELI® "10년간 한결같은 정성으로…"

한국형 델리샵으로 국내 외식시장에 성공적 안착

인터뷰

■ 한스델리 김세준 대표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객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한국형 델리샵 '한스델리'를 운영하는 김세준 대표(사진)는 고객 그리고 점주에 대한 '상생'만을 생각하며 지난 10년동안 한결 같은 경영철학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신수동 한스앤컴퍼니 본사에서 만난 그는 "2014년은 한스델리가 고객과 가맹점주, 그리고 여러 협력사 분들을 만난 지 10년이 되는 해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 남는 자가 강한 자'라는 문구가 그저 말장난이 아니게 느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욕에서 온 델리샵

김 대표는 성균관대 공대를 졸업

한 후 이랜드 공채 5기로 입사해 8년간 시장 조사팀과 구매·생산·영업·아울렛MD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신세계I&C 상품기획팀, 미국 뉴욕 We Care Trading사에서 세일즈 매니저를 지내는 등 외식업과는 동떨어진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그는 2001년 뉴욕 베어마운틴 주립공원을 테마로 한 패밀리레스토랑 '베어마운틴'의 문을 야심차게 열었지만, 기업형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마케팅 공세와 과열 경쟁으로 문을 닫아야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미국 뉴욕에서 즐겨 찾던 '델리샵(Deli Shop)'에 눈길을 돌렸다.

"주변에서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걱정과 염려가 있었지만 가능할거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상의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먹을 수 있다면, 게다가 맛까지 좋다면 고객들이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에 순살 등심 돈까스 2900원, 토마토미트 스파게티 3900원이란 가격에 고객들은 재료의 품질과 맛을 의심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스델리는 초창기부터 동원그룹 등 국내 최고의 소스 기업 제품만을 취급해왔다. 결국 그 진심이 고객에게 인정받으면서 2010년 소비자가 직접 뽑은 올해의 브랜드상, 2012~2013년 중소기업청 선정 우수프랜차이즈 2년 연속 수상, 2012~2014년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김 대표는 한스델리가 프랜차이즈 기업이기 때문에 가맹점주의 행복도 고객 행복만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점주가 성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점주가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로 점주가 돈을 벌어야 하고 정직한 땀의 대가를 통해 점주는 행복한 부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김세준 대표는 직원과 가맹점주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CEO로 유명하다. 분기별 워크샵과 봄·가을 체육대회, 직영 점장 워크숍을 가지면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가맹점 간 노하우를 공유하며 일과 더불어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스델리, 러브마크가 되다

그는 고객들이 왜 한스델리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스델리를 찾는 고객들의 입장이 돼 해보았다고 한다.

"시중에는 한스델리 보다 싸고 다양한 메뉴를 팔고 있는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3000원짜리 국밥집도 있고 4000원짜리 백반집도 있습니다. 하지만 10~20대를 비롯한 많은 고객들은 한스델리를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중 하나로 꼽습니다. 거기에는 한스델리만의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한스델리가 고객들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러브마크(Love Mark)'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칼로리·가격인상·변명도 '킹'"

버거킹, 납득 안되는 이유로 값 올려 빈축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이 지난 20일부터 기습적으로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킨 것과 관련해 비난이 거세다.

이 업체는 지난 3월 공공기관의 조사 결과 칼로리가 가장 높게 나타나 '소비자를 뚱뚱보로 만드는 제품'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상태여서 해당 업체의 이름을 빗대어 '칼로리부터 가격 인상, 변명까지 모두 '킹(king)''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2일 버거킹과 관련 업체에 따르면 버거킹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일부터 대표 메뉴인 와퍼를 비롯한 햄버거 메뉴 가격을 200~400원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와퍼는 5000원에서 5400원으로 8.0%, 와퍼주니어는 3600원에서 3900원으로 8.3% 값이 올랐다.

이미 버거킹 측은 지난 3월 24일 와퍼와 와퍼주니어의 가격을 각각 100원씩 올린 바 있다.

당시 버거킹 측은 "2011년 이후 3년 가까이 가격을 올리지 않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부득이 가격 인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햄버거의 원료육인 호주와 뉴질랜드산 수입 소고기가 지속적으로 값이 올라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업체는 이 같은 버거킹의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2일 발효되면서 호주산 쇠고기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똑같이 호주산 소고기 패티를 쓰는 맥도날드와 롯데리아는 현재 제품 가격 인상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대조를 이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지난 2012년 두산에서 보고펀드로 매각된 버거킹이 재매각 몸값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1년 사이에 제품 가격을 10%가량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버거킹은 지난 3월 26일 한국소비자원이 5개 패스트푸드 업체의 대표와 최다 매출 메뉴 7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버거킹의 와퍼 1개 세트 열량은 무려 1122㎉에 달해 성인 남성의 하루 영양 섭취 기준(2200~2600㎉)의 43.2~51.0%에 해당해 충격을 줬다.

/정영일기자

편의점, 간편식 수요 늘자 프리미엄 경쟁

중량 늘리고 품질 강화

1인 가구 증가로 간편식 시장이 커지면서 편의점 업계의 상품 경쟁이 치열하다.

실제로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14 가공식품 소비자 태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2.6%는 간편식 가공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프리미엄 가공식품 구입 경험자도 56.8%로 지난해보다 19.2 포인트 증가했다.

편의점 간편식에 대한 기대 심리가 늘면서 프리미엄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추세다. CU의 경우 2012년 5.7%에 그쳤던 프리미엄 김밥 매출 비중이 22%로 뛰었다.

이에 업계가 재료 품질을 강화한 신제품을 잇따라 내놓았다.

CU는 지난 18일부터 제주 흑돼지를 원재료로 사용한 등심 돈가스 도시락(사진 왼쪽)을 제주 지역 특화 메뉴로 출시한다. 엄지손가락 굵기의 등심 돈가스와 함께 미트 토마토 스파게티·모둠 피클 등으로 구성됐다.

GS25는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햄버거 전문점의 더블 패티 콘셉트를 벤치마킹해 '위대한 더블버거'(오른쪽)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일반 햄버거(평균 112g)의 약 3배에 달하는 350g 중량으로 5인치 번과 소고기 패티 2장, 야채·치즈 등이 들어가 있다.

또 세븐일레븐은 가정 간편식 전문 브랜드 '맛있는 행복'을 론칭하고 황태채·콩나물이 들어간 '황태해장국밥'과 소고기·토란 등 건더기가 들어있는 '육개장국밥' 등 2종의 국물 상품을 선보였다.

한편 미니스톱은 속 재료 비율을 늘려 중량을 기존 삼각김밥 보다 약 1.5배 늘린 스틱 주먹밥을 1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

"독서·공연으로 문화힐링하세요"

강강술래, 길벗 추천도서 등 무료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스트레스나 피로가 한꺼번에 몰리는 연말연시를 맞아 고객들이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및 추천도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강강술래는 오는 28일까지 홈페이지(sullai.com) 문화경품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대학로 예술공간 유비누리 앱질 전용관에서 공연되는 연극 '그녀를 믿지 마세요' 공연티켓을 증정한다.

사랑을 만들어 주는 연애컴퍼니를 배경으로 주인공이 2년간의 짝사랑의 결실을 맺는 과정을 유쾌하고 재미있게 보여준 로맨틱 코미디다.

또 31일까지 홈페이지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도서출판 길벗의 '농부가 된 도시사람들'과 '우주비행사의 지구생활 안내서'도 선물한다.

'도시사람들'은 귀농 5년차 새내기 농부부터 20년차 베테랑 농부까지 개성만점 7인 7색의 농부들이 귀농의 모든 것을 소개한다.

'지구생활 안내서'는 우주비행사 크리스 해드필드가 9살에 품은 우주비행사라는 불가능한 꿈을 가능으로 만들어가는 도전의 여정을 흥미진진하게 들려준다.

한편 강강술래는 온라인마케팅과 상품 기획, 종합몰·오픈마켓 관리 등을 담당할 온라인쇼핑몰 팀장을 공개 채용한다.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jklfds24@sullai.com)로 접수하면 된다.

/정영일기자

샴푸 없이 머리감기 열풍

머리카락·두피 건강위해 화학성분 없는 제품 인기

샴푸 없이 머리를 감는 '노푸(NO와 샴푸의 POO의 합성어)' 열풍이 불고 있다.

기네스 펠트로·제시카 심슨 등 할리우드 스타들의 두피 건강법으로도 알려진 '노푸'는 샴푸의 화학적인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샴푸가 머리카락과 두피의 노폐물을 씻어내면서 피부 장벽까지 벗겨내 오히려 탈모·비듬 등 트러블이 생기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며 "특히 샴푸에 들어있는 SLS(라우릴황산나트륨)와 SLES(라우레스황산나트륨)이 이같은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성분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스킨알엑스 측은 "노푸 용법으로는 샴푸 대신 물·베이킹 소다·사과 식초를 이용한 자연주의 방법과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샴푸를 쓰는 것이 있다"며 '착한' 헤어케어 제품을 제안했다.

프랑스 유기농 브랜드 시크릿드프로방스의 비누형 샴푸 몸샹핑(사진 왼쪽)은 SLS·SLES 성분뿐 아니라 두피에 유해한 파라벤·설페이트·색소가 들어있지 않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식물성 베이스와 오가닉 쉐어버터·글리세린 성분으로 두피와 모발 건강까지 보호하는 것이 특징이다. 도넛모양의 독특한 디자인으로 사용하기도 간편하다.

오가닉 인증과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브랜드 존 마스터스 오가닉의 베어 무향 샴푸(가운데)는 화학 성분을 최소화하고 유화제를 쓰지 않았다. 13가지 오가닉 성분들과 오일이 함유돼 있어 머릿결을 부드럽게 가꿔준다. 꾸준히 사용하면 가늘어진 모발과 얇아진 두피가 점점 건강해진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호주 브랜드 오스트레일리언 네이티브 보내티컬스 샴푸(오른쪽)는 화학 계면활성제가 들어 있지 않고 비타민·항산화 물질을 함유한 순수 식물과 에센셜 오일을 혼합해 만든 천연 샴푸다. 건강한 머리카락과 두피를 위해 PH지수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겨울의 특별함을 요리한 '한국의집'

31일까지 점심특선으로 '굉만두 한우곰탕' 선봬

도심에서 한국의 맛과 멋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내·외국인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그중 한국의 전통생활과 문화를 소개할 목적으로 건립된 '한국의집(관장 김기삼)'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눈이 쌓인 한옥에서 먹는 재미와 보는 재미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의집은 오는 31일까지 겨울철 찬바람으로 꽁꽁 언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면서 풍부한 단백질로 겨울철 무거워진 몸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겨울 점심특선 '꿩만두 한우곰탕'을 판매한다.

한국의집 조리팀이 야심차게 선보이는 메뉴로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꿩고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또 다양한 전통 궁중음식 메뉴들이 준비돼 있어 개인의 기호에 맞는 음식들도 맛볼 수 있다.

한국의집은 전통 가옥으로 이뤄져 있어 서울 도심에서 고풍스런 한국의 전통을 누릴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하다. 특히 겨울철 눈 덮인 한옥의 모습은 외국 관광객들에게 아름답다는 찬사를 받는 곳이며 교통이 편리한 도심에 위치해 있어 방문하기도 쉽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복한 새해를 맞이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문의: 02)2266-9101~3·www.koreahouse.or.kr

/황재용기자 hsoul38@

"크리스마스 선물, 캐릭터 vs 예능 히트상품"

온라인 몰, 막판 특수 잡기 기획전 잇따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선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2일 CJ몰과 CJ오클락 등에 따르면 12월 2주차부터 유아동 선물 제품군 주무량이 급증하면서 평소보다 2~3배가량 매출이 뛰었다. 크리스마스 이틀 전까지 주문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는 또봇·겨울왕국 등 '캐릭터 제품'과 육아 예능 프로그램 속 '히트 상품' 등이 2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만화 캐릭터 열풍이 크리스마스 선물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CJ몰과 오클락에서는 로봇 등 작동완구류가 지난해 보다 40% 매출이 증가했다. 또 오클락에서 진행하는 '또봇&바이클론즈 모음전' 상품 중 또봇 델타트론은 판매 시작 3시간 만에 완판되기도 했다.

또 육아 예능이 인기를 얻으면서 'OOO 유모차' 'OOO 인형' 등 프로그램 속에 등장한 제품도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KBS2의 예능 프로그램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등장한 크림하우스 매트 제품은 지난 11월 체험단 행사 진행 당시 반나절만에 매진됐다. 지난 10월 온라인 단독으로 CJ몰에 론칭한 '패밀리 전동차 디트로네'는 200만원대의 고가에도 불구하고 매월 30% 이상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온라인 유통 업계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기획전을 이어가며 막판 특수 잡기에 한창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

"크리스마스엔 사랑을 나눠요"

더페이스샵 '홀리데이 에디션' 수익금 기부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은 크리스마스 한정판 '홀리데이 러브 에디션'(사진 아래)과 '하우스 퍼퓸'(위)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홀리데이 러브 에디션은 시어버터를 함유한 '핸드버터 세트'와 풍성한 거품이 나는 '포밍 버블바스 세트'를 비롯해 '쿠션 스크린셀 세트' '섀도 팔레트' 등 메이크업 제품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유쾌한 감성이 돋보이는 황나경 일러스트레이터와 협업을 통해 깜찍한 디자인으로 선보였다. 크리스마스 파티를 모티브로 한 디스코볼과 비즈·크리스탈·리본 등의 일러스트를 제품에 담아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의 분위기를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더페이스샵은 홀리데이 러브 에디션 판매수익금 일부를 아프리카 남수단 지역 주민의 자립을 돕는 '희망고 캠페인'에 기부, '착한 소비'를 실현할 수 있게 했다.

하우스 퍼퓸은 홈 파티가 많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에 로맨틱한 무드를 연출하기에 특히 좋은 홈 퍼퓸 제품이다.

장미꽃 부케를 안은 듯 우아한 향기가 매력적인 '로즈 워터 하우스 퍼퓸'과 러블리한 벚꽃 향기의 '체리 블라썸 하우스 퍼퓸', 맑고 순수한 목화꽃 같은 '퓨어 코튼 하우스 퍼퓸', 이슬 맺힌 싱그러운 녹차 밭을 연상시키는 '그린티 하우스 퍼퓸', 달콤한 솜사탕 같은 향기의 '슈가 베리 하우스 퍼퓸' 등 5종으로 출시됐다.

풍성한 발향 효과로 하나만 사용해도 방안 가득 향기가 전달되며, 알코올-프리 제품으로 향 지속력이 탁월하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여성스러운 느낌을 주는 플라워 스틱과 세련된 분위기를 내는 블랙 컬러의 디퓨저 스틱 등 2가지 타입이 있다.

/박지원기자

아식스 '오니츠카타이거' 이벤트, MCM이벤트. (왼쪽부터)

'연말 증정품'으로 실용 vs 귀여움

'1+1' 등 이벤트 인기

연말이 다가오면 기업들은 다양한 이벤트를 벌인다. 올해에는 다이어리·텀블러 등 실용적인 아이템과 캐릭터 아이템을 선물로 주는 이벤트가 큰 화제를 몰고 있다. 여기에 최근 키덜트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동심을 자극하는 귀여운 캐릭터 상품도 이벤트 상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아식스의 프리미엄 브랜드 오니츠카타이거는 선착순으로 20만원 이상 구매객에게 써모스 텀블러를 증정하고, VIP 고객 500명에게는 몰스킨 다이어리를 증정한다.

MCM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MCM 스페셜 위크' 행사를 25일까지 진행한다. 이 기간 80만원 이상 구매하면 '고급 MCM 다이어리'를 증정한다. 또 31일까지는 한 해 동안 가장 큰 사랑을 받아온 18개 제품 중 2개 이상 선택할 경우 할인 혜택도 준다.

던킨도너츠가 지난 1일부터 벌이고 있는 '무민 쿠션' 증정 이벤트는 초도 물량을 모두 소진해 예정보다 일정을 당겨 잔여 물량을 모두 공급 중이다. '무민'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트롤(요정)을 캐릭터화한 것으로 핀란드에서는 국민 캐릭터라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배스킨라빈스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구매 때 '멀티 폴라베어'를 1000원에 증정한다. 깜찍한 가방, 포근한 쿠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멀티 폴라베어' 소진 때까지 진행되며, 추가 구매를 원할 경우 최대 1개를 1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정영일기자 prms@

한 단계 진화한 2014 제약사 광고

'박카스' 29초 영화제 등 차별화 전략으로 소비자 공략

올해 제약사들은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광고다. 차별화된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정보는 물론 재미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으며 회사의 이미지를 다시 만들기도 했다.

먼저 제약사 광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동아제약의 '박카스'가 있다. 동아제약은 올해 여름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난해 '박카스 29초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으로 TV광고를 제작했다. 2012년부터 박카스 광고가 보여준 '대한민국에서 ○○○으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열린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학부형 편 등 총 3편이 방영됐으며 이 광고는 소비자의 공감을 이끄는 것은 물론 진한 여운을 남기며 많은 이들을 생각에 잠기게 했다.

동아제약의 '박카스' 광고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서 학부형으로 산다는 것'. /동아제약 제공

이후 동아제약은 일상생활에서 쉴 새 없이 사용되다 방전돼 충전이 필요한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피로한 직장인에게도 충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의 광고를 공개했다. 아울러 동아제약은 펀(FUN) 마케팅의 일환으로 숙취해소제 '모닝케어 레이디' 광고에 음주가무형 걸그룹 '티안나걸스'를 출연시켰으며 드라마 '사랑과 전쟁'을 패러디한 식물성 소화제 '베나치오'의 새 광고 '소화와 전쟁'을 제작해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갔다.

대웅제약은 '간 때문이야'라로 히트를 친 '우루사'의 새 광고로 '캡슐맨'에 이어 유준상을 등장시켰다. 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에서 내레이션은 물론 직접 출연까지 하며 건강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국민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준상은 광고업계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와 일반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선호도 조사를 거쳐 가장 적합한 모델로 판단돼 우루사의 모델로 발탁됐다.

이번 광고에서도 유준상은 우루사를 통한 간관리의 필요성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간 선생'으로 등장해 편안하고 친근감 있는 이미지로 우루사를 홍보한다. 또 대웅제약은 TV는 물론 신문과 라디오,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대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우루사의 광고신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카레의 원료로 잘 알려진 울금(강황)에서 추출한 '커큐민'의 흡수율을 27배나 높인 한독의 숙취해소제 '레디큐'도 올해 제약사 광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기존 숙취해소제와 달리 달콤한 열대과일 맛 주스와 망고 맛 젤리로 출시된 제품은 '행오버 주스'와 '행오버 젤리'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으며 광고도 애칭만큼 화제가 됐다.

첫 광고에서는 한 직장인 여성이 술에 취해 다리를 벌리고 있는 지하철 쩍벌남 앞에서 마치 시위라도 하듯 지하철 안에서 거꾸로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줘 CG가 아닌지 하는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는 레디큐를 거꾸로 흔들어서 마셔야 효과가 좋다는 것에 착안한 광고로 한독은 기존 광고에 유쾌한 일러스트가 추가된 리뉴얼 버전 CF를 지난달 초에 공개해 또 한 번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함께 스타 마케팅도 끊이지 않았다. 경남제약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김수현을 '레모나' 모델로 기용했다. 바이엘 코리아는 이승기를 내세운 PPL을 통해 '베로카'를 히트 상품 대열로 올라서게 만들었다. 한국먼디파마도 베로카의 광고모델이기도 한 이승기를 '메디폼'의 얼굴로 발탁하며 스타 마케팅을 실시했다.

이 외에도 태극제약은 개그맨 김기리와 함께 '벤트플라겔'의 이색 광고를 촬영해 극장과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집중 공략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씨스팜은 '팔팔체조'라는 이채로운 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운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겨울철 내 눈 적신호가 보인다

자외선 차단하고 안구건조증 신경 써야

차가운 바람에 가장 취약한 신체 부위는 눈이다. 외부 환경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에 전루민(사진) 이대목동병원 안과 교수에게서 겨울철 눈 건강관리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먼저 겨울에는 자외선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하얀 눈과 빙판길은 자외선의 80%를 반사해 눈은 자외선에 이중으로 노출될 수 있다. 또 겨울 등산을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자외선 노출이 증가해

각막에 화상을 입는 설맹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겨울에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나 고글을 착용해야 하며 특히 눈이 내린 후에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게다가 시야의 중심이 어둡고 뿌옇게 보이는 설맹 증상이 생기면 냉찜질을 하는 것이 좋으며 심한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겨울철 차고 건조한 날씨는 눈 건강에 치명적이다. 겨울이 되면 눈이 시리고 따갑거나 찬바람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눈물막이 제 역할을 못해 눈물 생산이 적어지고 눈물이 빠르게 증발해 나타나는 안구건조증의 증상이다. 더욱이 실내에서 가동되는 난방기구도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전 교수는 "가습기 등을 이용해 실내 습도를 조절하고 눈이 건조할 때는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의식적으로라도 눈을 자주 깜박이는 것이 효과적이며 콘택트렌즈 착용 등은 눈의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쉐라톤 인천 호텔 '다양한 패키지'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쉐라톤 인천 호텔이 올 겨울을 따듯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패키지를 준비했다.

먼저 '겨울 이야기 패키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겨울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패키지다. 디럭스룸 1박과 함께 무료 조식 뷔페가 제공된다.

'삼시세끼 패키지'를 이용하면 호텔에서 하루 종일 따듯하고 편안한 힐링을 즐길 수 있다. 디럭스 룸 1박과 함께 세끼가 제공되는데 저녁은 피스트 뷔페에서 푸짐하게 즐길 수 있으며 아침식사는 편안하게 객실로 전달된다. 또 체크아웃 시에는 테이크아웃 런치박스가 증정된다.

호텔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소셜 아워'와 함께 다양한 와인을 시음하며 사교를 즐길 수 있는 '소셜 아워 패키지'도 빠뜨릴 수 없다. 디럭스룸 1박과 더불어 화이트와인 3종류와 레드와인 3종류 중 3가지를 골라 시음한 후 마음에 드는 와인 1병을 선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호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의 러브레터 패키지'는 로맨틱한 크리스마스를 위한 패키지다. 사랑하는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감미로운 재즈공연과 디너 만찬 코스요리를 만끽할 수 있도록 개그맨 조세호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디너 입장권 2매가 포함돼 있다. 단 이 패키지는 24일만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상기의 모든 패키지에는 쉐라톤 피트니스와 실내 수영장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032)835-1004

/황재용기자

새해맞이 도심서 편안히

르네상스 서울 호텔 '디스커버 패키지'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새해를 맞아 도심에서 편안하고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디스커버 패키지'를 내년 1월 1일부터 선보인다.

'시네마 파라다이스 패키지'와 '쇼퍼 홀릭 패키지' 등 총 두 가지 패키지이며 유리돔을 통해 비치는 자연광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수영장과 르네상스 레크리에이션 센터 무료 이용

등이 공통 혜택으로 제공된다.

먼저 시네마 파라다이스 패키지는 실속 있는 가격에 휴식을 즐기고자 하는 고객에게 안성맞춤이다. 공통 혜택과 더불어 디럭스 룸 1박, 서울 전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메가박스 무료 예매권 2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요금을 추가하면 뷔페 레스토랑 카페 엘리제 2인 조식 이용이 가능하다.

쇼퍼 홀릭 패키지는 주말에 이용 가능한 패키지로 공통 혜택과 함께 디럭스 룸 1박, 더 베이커리 'Grab& go' 프로모션 머핀과 커피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게다가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픽업&샌딩 서비스와 VIP 쿠폰북 교환권 1매도 주어진다. 문의: 02)2222-8500

/황재용기자

평범하기에 더 큰 울림

'국제시장'의 황정민

잔혹하지만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뜨거웠던 '브라더',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사랑 앞에 모든 걸 내던진 건달까지. 최근 스크린에서 만났던 황정민(44)은 거칠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인간적인 면모를 하나쯤은 숨겨놓은 남자였다. 제 아무리 나쁜 삶을 산 인물이라도 황정민이 연기하면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는 인간적인 캐릭터가 된다. 그가 웃고 울 때 관객도 함께 웃고 우는 이유다.

지난 17일 개봉한 '국제시장'은 그런 황정민의 인간적인 매력이 보다 빛을 발하는 영화다. 1950년대를 시작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몸소 겪어온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시대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황정민은 "언젠가부터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며 출연이유를 밝혔다.

"어머니 이야기를하는 영화는 많았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영화는 없는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버지도 내가 어릴 때는 나를 예쁘게 바라봤을 텐데 지금은 왜 이런 거지? (웃음) 하지만 이런 게 부자관계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진솔한 아버지 이야기 늘 하고싶었어요
색깔을 덜어내고 평범한 인물로 연기해
클라리넷 배우는 중 "언젠가는 공연도"

'국제시장'에서 황정민이 연기한 덕수는 너무 어린 나이에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짊어지게 된 이 시대의 평범한 아버지다. 6·25 피란 과정에서 동생의 손을 놓아버린 탓에 동생은 물론 아버지와도 생이별을 하게 된 덕수는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부산 국제시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황정민은 덕수의 20대부터 70대 노인이 된 모습까지 한 인물의 거의 평생을 연기했다.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인물을 보여주는 것도 벅차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 인물의 인생을 오롯이 보여줘야 하니까 더 고민이 됐어요. 제가 덕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해야 관객들도 덕수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힘든 작업이지만 이걸 해낸다면 제게 또 다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초점을 맞춘 것은 바로 노인 연기였다. 괴팍하고 외곬인 70대 할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영화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70대의 덕수를 제대로 설정한다면 20대부터 40대까지의 덕수의 삶을 충분히 관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처음으로 노인 분장도 했지만 분장보다도 자연스러운 노인의 풍채를 보여주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노인 덕수가 보여주는 구부정한 등, 손의 떨림, 그리고 느린 발걸음에서 황정민의 그런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황정민은 덕수가 관객에게 어떤 색깔을 칠한 '특별한' 캐릭터로 다가가기를 바라지 않았다. 관객 모두가 각자의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는 '평범한' 캐릭터이기를 바랐다. '국제시장'에서 황정민이 기울인 가장 큰 노력은 곧 캐릭터의 "색깔을 덜어내는" 작업이었다.

"덕수가 겪는 이 수많은 일들을 한 사람이 모두 겪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영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영화를 보는 동안 관객들이 잠시나마 자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제가 이 영화를 하게 된 이유에요. 덕수를 통해아버지에 대한이야기로 관객과 소통하고 싶었으니까요."

'국제시장'의 모든 것은 영화의마지막 한 장면에 담겨있다. 홀로 방에서아버지를 떠올리며 "힘들었다"고 눈물 흘리는 노인 덕수의 모습이다. 황정민은 "제일 중요한 장면이라고생각했지만 연기할 때는 굳이 힘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촬영 당시를 떠올렸다. 오히려 힘을 빼고 연기했기에 덕수의 마지막 울음은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다.

'국제시장'은 꿈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다. 배우로서는 남부러울 위치에 오른 황정민에게도 여전히 꿈은 있다. 2012년 '댄싱퀸' 개봉 당시 만났던 황정민은 "배우가 아닌 또 다른 꿈이 있지만 아직은 부담돼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2년 만에 다시 만난 그가 밝힌 꿈은 바로 클라리넷 연주였다. 그는 "새로운 취미처럼 시작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어서 꿈이 됐다"며 "언젠가는 예술의 전당에 클라리넷을 든 황정민의 포스터가 걸릴지도 모른다"고 웃음을 보였다.

올해 류승완 감독의 '베테랑'과 나홍진 감독의 '곡성' 촬영을 마친 황정민은 현재 이석훈 감독의 '히말라야'에서 엄홍길 대장 역을 맡아 촬영 중이다. 내년 3월에는 네팔 촬영도 앞두고 있다. 그는 "다른 작품들도 다 잘 되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국제시장'이 잘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실수·사고로 얼룩진 SBS '가요대전'

각종 음향·방송 사고에 '말실수'까지 시청자 게시판 비난 여론, 총체적 난국

올해 SBS '가요대전'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총체적 난국이었다.

21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BS '가요대전'은 8년만에 시상식을 재개한 만큼 이름도 SAF(SBS Awards Festival)로 새로 짓고 화려한 출연진을 앞세워 음악 팬들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욕심이 과한 탓이었을까. 이날 행사는 온갖 음향·방송사고가 속출하며 시청자들의 비난을 샀다.

첫 사고는 방송 시작 10분 만에 발생했다. 그룹 위너가 무대에 올랐지만 위너의 목소리 대신 걸그룹 러블리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앞선 무대에 섰던 러블리즈의 마이크가 꺼지지 않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인사가 그대로 안방에 전달된 것이다. 또 위너가 아닌 드레스 입은 여성의 뒷모습 등 엉뚱한 화면이 카메라에 잡히기까지 했다.

야심차게 준비한 축하 무대의 수준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갓세븐·레드벨벳·러블리즈 등 올해 데뷔한 신인 그룹들이 준비한 밴드 마룬5의 '무브스 라이크 재거' 무대는 약 2초 동안 가수들이 아닌 검은 화면이 전파를 탔다. 태양은 팝가수 제프 버넷과 합동 무대를 펼쳤지만 가사를 잊어버리는 초보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제프 버넷 역시 다소 미흡해 보이는 무대 준비로 팬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축하 무대는 공들여 준비 했다고 보기엔 식상했고 미흡했다.

걸그룹 씨스타의 소유와 인피니트 성규, 비투비 육성재, 정기고의 컬래버레이션 무대는 이미 앞서 진행된 2014 MAMA(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에픽하이와 함께 무대에 올라 '헤픈 엔딩'을 부른 김유정의 라이브는 시도는 좋았지만 실력은 학예회 수준이었다. '슈퍼5'라는 콘셉트로 진행된 무대에서는 앞선 가수의 노래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바로 다음 가수 차례로 넘어갔다. 노래의 여운을 느낄 시간은 허락되지 않았다.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시상식이 마치 방송사의 섭외력을 뽐내기 위한 자리처럼 보였다.

SBS '가요대전' 오프닝

SBS '가요대전' 갓세븐·러블리즈·위너·레드벨벳

SBS '가요대전' 태양(왼쪽), 제프 버넷

SBS '가요대전' 김유정

SBS '가요대전' 위너

SBS '가요대전' AOA 초아

특히 이날 2PM 닉쿤, 씨엔블루 정용화, B1A4 바로, 인피니트 엘과 프로젝트 그룹 럭키보이즈를 결성해 진행을 맡았던 위너의 송민호는 대한민국 반도를 '열도'라고 말하는 실수를 했다.

이에 제작진은 22일 "송민호의 잘못된 단어 사용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제작진이 대본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감수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이 같은 실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현재 공식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쌍팔년도 무대도 이렇지는 않았다' '카메라, 음향 보는 내내 불편했다', '시청자를 우롱한 시상식' 등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실수와 사고로 얼룩진 이날 시상식은 시청자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SBS '가요대전'만의 것은 아니다. 해마다 열리는 시상식은 언제나 비슷한 축하 공연과 상 나눠 갖기 혹은 몰아주기 등의 문제로 도마에 오른다. 이에 따른 지적도 십수년 째 이어지고 있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수많은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규모만 키울 뿐 내실을 다지지 않는 시상식엔 실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로코베리, 손호준과 컬래버레이션

'MFF 프로젝트' 일환… 수익금 일부 기부

인디밴드 로코베리와 배우 손호준이 재능기부를 통해 불우이웃을 돕는다.

로코베리는 손호준과 함께 부른 디지털 싱글 '어떤가요'를 22일 정오에 발표했다. 추운 겨울을 따스하게 감싸는 멜로디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마음을 담은 어쿠스틱 힙합 곡이다.

로코베리와 손호준의 이번 협업은 문화 컬래버레이션 'MFF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음악, 패션, 음식 등 각 분야 인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기부는 어려운 일이 아니며 작은 기부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시작됐다.

음악에서는 로코베리와 손호준이, 패션 분야에서는 맥앤로건의 로건, 음식 분야에서는 스타셰프 샘킴이 참여했다. 이들의 창작과정은 MFF 프로젝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로코베리는 SBS '괜찮아, 사랑이야'와 '피노키오' 등 드라마 OST에 참여하며 히트 작곡가로 자리매김했다. /김지민기자

신인 걸그룹 '소나무' 29일 데뷔

일주일 앞두고 앨범 예약판매 돌입

시크릿의 후배 걸그룹 소나무(사진)가 오는 29일 데뷔한다.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소나무의 첫 번째 미니앨범 '데자뷰' 트랙리스트를 22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데뷔 일주일을 앞두고 예약판매를 시작한 소나무의 데뷔 앨범 '데자뷰'는 스페셜판과 일반판으로 발매된다. 이번 앨범에는 동명 타이틀곡 '데자뷰'를 비롯해 '러브콜' '국민여동생' '아낌없이 주는 나무' 등 총 6곡이 수록돼 있다.

소속사는 "갓 데뷔하는 신인으로서 예약판매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음악에 대한 소나무의 진지한 자세와 실력을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7인조 소나무는 수민·디애나·뉴썬·의진·하이디·민재·나현으로 구성돼 있다. 수민은 리더로 팀을 이끌며 디애나와 뉴썬은 각각 저음과 고음의 랩 파트를 담당한다. 의진은 퍼포먼스 담당으로 무대 위에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하이디와 민재, 나현은 보컬 라인으로 소나무만의 청량한 목소리를 들려줄 계획이다.

한편 소나무는 오는 29일 데뷔 쇼케이스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지민기자

우리의 혁명은 숲에서 시작된다
ROBIN HOOD
DAS MUSICAL
로빈훗
2015.1.23-3.29 디큐브아트센터
유준상 서영주 이건명 엄기준 조순창 박진우 박성환 규현 양요섭 서지영 김아선 김여진 다나 외
|프로듀서|김선미 |연출|왕용범 |음악감독|이성준 |안무|서병구 |조명디자인|민경수 |무대디자인|서숙진 |음향디자인|권도경 |영상디자인|송승규 |의상디자인|한정임 |분장디자인|양희선 |소품디자인|김상희
Music : MARTIN DOEPKE Book : ANDREA FRIEDRICHS & HANS HOLZBRECHER Lyrics : ELKE SCHLIMBACH & GRANT STEVENS Orchestrations : HUMMIE MAN & MARTIN DOEPKE
Producer Original Production : ANDREA FRIEDRICHS Worldwide General Management : WILLEM METZ MANAGEMENT
WMM
|주최| SBS |투자| 하나투어 ISU 이수창업투자 |제작| (주)엠뮤지컬아트 |제작지원| kibo 기술보증기금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YES24.COM 티켓 (1544-6399) 하나 Free 티켓 (1566-6668) |문의| (주)엠뮤지컬아트 (02-764-7857~9) CLIP service (1577-3363) |홍보| SHOWHOLIC

지창욱

유지태

박민영

'힐러', '모래시계' 세대까지 아우를까?

역할 게임하듯 스릴 있는 드라마… 폭넓은 내용 전개 '호기심 자극'

KBS2 월화극 '힐러'를 보다 보면 마치 역할 게임을 하는 것 같다. 업계 최고의 심부름꾼이자 코드명 힐러인 서정후(지창욱), 두뇌를 쓰는 스타 기자 김문호(유지태)는 패기 넘치는 인터넷 신문사 기자 채영신(박민영)의 주위를 맴돌며 그녀를 주시한다. 세 사람에게 주어진 미션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지닌 '어떤 비밀'을 알아내는 것이다.

서정후는 '힐러'의 사이버적인 느낌을 만드는 인물이다. 세련된 남성미로 시선을 끈다. 블랙 패션과 스마트 기기로 무장한 모습이 미스터리한 매력을 자아낸다. 조민자(김미경)와 원격으로 교류하며 미션을 해결하는 모습이 극의 긴장감을 조성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조민자는 서정후의 주변을 컴퓨터로 확인하고 서정후는 조민자의 말대로 행동하며 아바타를 연상하게 한다. 날렵한 액션은 지창욱의 날카로운 눈매와 어우러져 보는 재미를 더한다.

지창욱이 날렵하다면 유지태는 묵직하다. 보도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아픔을 나누고 뉴스에서는 뼈있는 한마디를 남기며 시대가 원하는 언론인의 모습을 대변한다. '힐러'를 통해 6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한 유지태는 안정된 연기력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공백이 무색한 존재감을 보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박민영은 망가지기를 불사했다. 어린 시절 학대의 아픔을 감추기 위해 춤과 노래를 부르는 채영신은 씩씩한 소년스럽다. 박민영은 단발머리로 변신해 캐릭터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후문이다.

'힐러'는 정치나 사회 정의 같은 건 그저 재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하며 살던 청춘들이 부모 세대가 남겨놓은 세상과 대결하는 액션 로맨스 드라마다.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를 집필한 송지나 작가, 최고 시청률 50.8%를 기록했던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이정섭 감독이 함께 했다. '모래시계' 세대 자녀들의 이야기라는 점이 독특하다.

서정후·김문호·채영신은 80년대 해적방송을 했던 부모를 둔 인물이다. 김문호의 어린 시절과 2014년 사건들이 교차로 등장한다. 특히 지난주 채영신의 양아버지 채치수(박상면)는 채영신·서정후가 머리를 맞대고 잠든 모습을 목격, 두 사람의 어린 시절로 추정되는 장면이 겹쳐 나와 채영신·서정후의 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암시했다. 김문호는 채영신의 삼촌임이 밝혀졌고 그가 왜 채영신을 찾아 헤맸는지 이유는 아직 나오지 않아 향후 전개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힐러'는 치유자를 의미한다. 시청률 면에서는 '모래시계' '제빵왕 김탁구'의 영광을 재현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폭넓은 내용으로 전세대를 아우르는 메시지를 전달할 지 두고 볼만 한 작품이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시작과 끝 책임진다

엑소 디오, 'KBS 가요대축제'

그룹 엑소 멤버 디오(도경수·사진)가 '2014 KBS 가요대축제' 시작과 끝을 책임진다.

KBS에 따르면 올해 '가요대축제'는 가수들의 공연으로 시작과 끝을 맺는 일반적인 구성과 달리 에필로그와 프롤로그 형식으로 꾸며진다.

디오는 내레이션을 통해 에필로그와 프롤로그를 동화 같이 연출할 예정이다. 특히 에필로그에서는 '뮤직 이즈 러브'를 콘셉트로 사랑을 주제로 한 무대를 선사한다.

'2014 KBS 가요대축제'는 올 한해 가요계를 화합의 장으로 이끄는 중요한 무대다. 디오는 그 어느 때보다 공들여 연습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엑소의 멤버로서 국내외 팬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14 KBS 가요대축제' 측은 "디오는 케이팝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톱 아이돌 멤버"라며 "뛰어난 연기력과 퍼포먼스 능력을 갖춰 축제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주인공으로 발탁됐다"고 말했다.

한편 '2014 KBS 가요대축제'는 이휘재·택연·윤아가 진행하며 오는 26일 오후 8시 30분부터 220분 동안 KBS홀에서 열린다. KBS2에서 생방송된다.

/전효진기자

tvN, '미생' 인기 새해로 이어간다

패러디 '미생물', 장수원 캐스팅 연착륙 시도
후속작 '하트투하트', 최강희 파격 변신 예고

케이블채널 tvN이 지난 20일 종영한 드라마 '미생'의 인기를 새해에도 이어갈지 주목된다.

'하트투하트'는 '미생'의 후속으로 금·토요일 오후 8시 30분대 시간을 책임질 드라마다. 최강희(오른쪽 사진)·천정명이 주연을 맡았다. 2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하는 최강희와 OCN 드라마 '리셋'으로 3년 만에 브라운관을 찾았던 천정명의 연기변신이 큰 볼거리다. '커피프린스 1호점' 이윤정 PD의 tvN 데뷔작이기도 하다.

22일 제작진은 할머니 분장을 한 최강희의 촬영 모습을 공개했다. 그동안 사랑스럽고 엉뚱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훔친 최강희는 이번 드라마를 통해 연기변신을 꾀한다. 공개된 사진 속 그는 백발에 안경을 쓰고 완벽한 할머니 모습으로 파격 편신했다.

최강희는 대인기피성 안면홍조를 가진 여주인공 차홍도 역을 맡았다. 헬멧을 쓰지 않으면 외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심각한 그가 대안으로 할머니 변장을 선택한 것이다. 최강희는 이번 드라마에서 수줍은 처녀와 '멘탈 갑(휘둘리지 않고 정신적으로 매우 강한 사람) 할매'의 이중 생활을 선보일 예정이다. '하트투하트'는 내년 1월 9일 첫 방송된다.

이와 함께 tvN은 '미생'을 패러디한 코믹 드라마 '미생물'을 제작해 '하트투하트'의 연착륙을 도울 예정이다. 내년 1월 2일 첫 선을 보일 '미생물'은 배우 장수원(왼쪽)과 함께 개그맨들의 캐스팅 소식으로 화제를 일으킨 2회 분량의 드라마다.

제작진은 22일 첫 촬영 현장을 공개했다. 지난 17일 첫 촬영 당시의 장면으로 '로봇 연기'의 대가 장수원이 임시완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장수원은 품이 큰 아버지의 양복을 빌려 입은 채 첫 출근하는 '짠한' 임시완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 '짠그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최근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 장수원은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라는 유행어를 로봇 연기와 함께 보여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tvN의 신년특별기획으로 제작된 '미생물'은 'SNL코리아' 시리즈와 '잉여공주'에서 탁월한 유머코드를 선보인 백승룡 PD가 연출을 맡았다. 오상식 차장(이성민) 역에는 황현희, 안영이(강소라) 역에는 장도연, 장백기(강하늘) 역에는 황제성, 김동식 대리(김대명)에는 이진호, 한석율(변요한)에는 이용진이 각각 캐스팅됐다.

'미생물'은 주인공 장그래가 아이돌 연습생 출신으로 연예계 데뷔에 실패한 뒤 냉혹한 현실에 던져진 이야기를 다룬다. '미생물'이었던 주인공이 점점 '생물'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는 내용으로 내년 1월 2일과 9일 오후 9시50분에 방송될 예정이다.

/김학철기자 kimc0604@

동화 속 인물들이 현실로 등장…

동화에 대한 재해석 담은 뮤지컬 영화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숲속으로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롭 마샬 감독의 뮤지컬 영화 '숲속으로'는 동화의 익숙한 첫 구절로 시작한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 각자 나름의 소원을 지닌 주인공들이 등장한다. 왕자님이 연 파티에 가고 싶은 신데렐라, 엄마의 심부름으로 할머니를 찾아가는 빨간 망토, 아들 잭이 멍청하지 않았으면 하는 엄마,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은 베이커 부부가 그들이다. 그리고 저주에 걸린 마녀의 이야기까지 뒤섞이면서 영화는 그야말로 동화의 집대성 같은 흥미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곳은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 바로 '숲'이다. 무성한 나무들로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숲에서 이들은 각자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여기에 마녀의 숨겨놓은 딸 라푼젤과 왕자의 애틋한 로맨스까지 더해지면서 숲은 동화 속 인물들이 모두 공존하는 하나의 세계가 된다. 그곳

에서 인물들은 서로가 지닌 속마음을 조금씩 털어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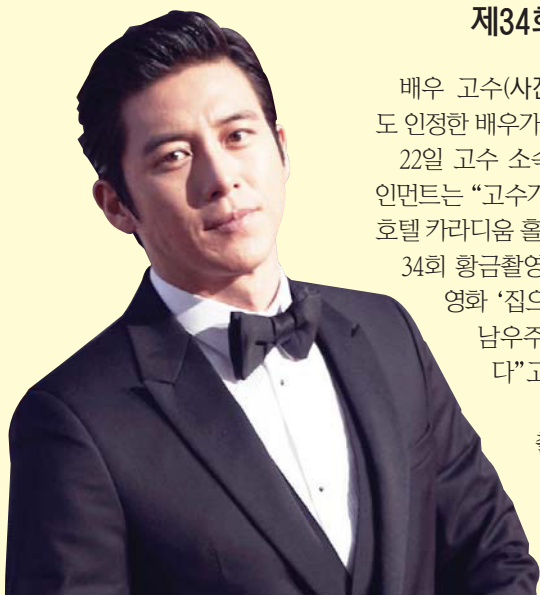
숲을 가득 매운 나무들의 엉킨 가지처럼 이들의 소원과 바람도 얽히고설킨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그토록 바랐던 소원도 이뤄지게 된다. "그 뒤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과연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을까? '숲속으로'가 그리는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다시 찾아간 숲에서 등장인물들을 숨겨놓은 욕망과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신데렐라는 사실 결정을 잘 못하는 소심한 인물이고, 신데렐라의 마음을 사로잡은 왕자는 자신의 권력과 외모만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나르시스트다.

늑대를 만나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다고 조심스럽게 고백하는 빨간 망토, 그리고 자신이 아끼던 소를 되찾기 위해 '콩나무'를 올라타고 거인의 보물을 훔친 잭, 그리고 남편보다 잘 생긴 왕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베이커의 아내까지 영화는 동화 속 인물들의 현실적인 면모를 찬찬히 담아간다. 동화처럼 시작한 영화는 그렇게 삶과 인생에 대한 이야기로 깊이를 더한다.

한 편의 동화 같은 뮤지컬 영화를 기대한다면 '숲속으로'가 보여주는 이 변화가 낯설 것이다. 오히려 '숲속으로'는 동화의 무의식을 파고들면서 동화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작품에 가깝다. 다소 무거운 주제라는 점에서 어른들을 위한 동화이기도 하다. 기승전결과는 거리가 먼 스토리텔링으로 극 전개가 느슨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대신 환상적인 음악과 영상미가 그 아쉬움을 어느 정도 채워준다. 전체 관람가. 12월24일 개봉.

촬영감독도 인정한 고수

제34회 황금촬영상 남우주연상 수상

배우 고수(사진)가 촬영감독도 인정한 배우가 됐다.

22일 고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고수가 24일 서울 PJ 호텔 카라디움 홀에서 열리는 제34회 황금촬영상 시상식에서 영화 '집으로 가는 길'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다"고 전했다.

황금촬영상은 촬영감독들의 투표로 한 해 동안 가장 인상적인 활동을 선보인 영화인들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실제 촬영을 하고 배우들을 접하는 스태프들이 뽑아준 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한편 고수는 24일 개봉하는 영화 '상의원'으로 극장가를 찾는다. 조선에 유행을 일으킨 천재 디자이너 역을 맡아 지금까지 보여준 적 없는 색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또한 조선 왕실에서 의복을 만드는 어침장 조돌석 역의 한석규와 팽팽한 경쟁으로 스크린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장병호기자

포크 음악에 실려오는 첫사랑

'쎄시봉' 내년 2월 개봉
김윤석·정우 – 김희애·한효주 2인 1역

1960~1970년대를 풍미했던 음악감상실 쎄시봉을 배경으로 한 첫사랑의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 '쎄시봉'이 내년 2월 개봉을 확정했다.

'쎄시봉'은 한국 음악계에 포크 열풍을 일으킨 조영남·윤형주·송창식·이장희 등을 배출한 무교동의 음악감상실 쎄시봉을 배경으로 눈부시도록 찬란한 청춘과 가슴 시린 첫사랑을 담은 영화다. 트윈폴리오의 탄생 비화와 그들의 뮤즈를 둘러싼 애틋한 러브스토리를 그린다.

개봉 확정과 함께 공개된 티저 예고편은 트리오로 음악을 시작하게 된 윤형주(강하늘), 송창식(조복래), 오근태(정우)의 첫 만남, 그리고 '쎄시봉'의 뮤즈 민자영(한효주)의 등장을 담았다. 여기에 조영남(김인권), 이장희(진구) 등의 활약을 예고해 기대를 갖게 만든다.

영화는 김윤석과 정우, 한효주와 김희애의 2인 1역 캐스팅을 화제를 모았다. 김윤석과 김희애는 40대가 된 자영과 근태 역으로 멜로 연기를 펼친다. '광식이 동생 광태' '시라노; 연애조작단'의 김현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장병호기자

'빅 히어로' 내년 1월 상륙

북미서 '인터스텔라' 꺾은 애니메이션 흥행작

'겨울왕국'에 이은 디즈니의 신작 애니메이션 '빅 히어로'가 내년 1월 개봉을 앞두고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다.

'빅 히어로'는 천재 공학도 형제 테디와 히로가 만든 로봇 베이맥스가 사랑스러운 슈퍼히어로로 거듭나는 과정을 담은 액션 어드벤처 영화다.

이번에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비상한 두뇌를 가진 천재 형제 테디와 히로, 그리고 로봇 베이맥스의 다정한 모습을 담고 있다.

베리맥스는 치료용으로 개발된 로봇으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몸매에 푹신한 재질로 지금껏 본 적 없는 사랑스러운 로봇 캐릭터의 탄생을 예고한다.

특히 영화는 배우 다니엘 헤니가 테디의 목소리를 연기해 화제가 됐다. 테디는 실제 다니엘 헤니와 외모까지 흡사해 목소리 연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빅 히어로'는 동명의 마블 코믹스 원작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다. '겨울왕국' '주먹왕 랄프' 제작진이 참여했다. 북미에서는 '인터스텔라'와 같은 시기에 개봉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으며 북미 흥행 수익 2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빅 히어로'는 내년 1월22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위장 건강을 지키는 귤 껍질 차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귤의 계절이다. 귤은 과거에 황감이라고 불리며 임금에게 올리는 진상품으로 쓰였다. 조선시대에는 귤이 진상된 것을 기념해 치르는 황감제라는 특별 과거시험도 있었다. 진상된 귤을 종묘에 올린 후, 신하들과 성균관 등 유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시제를 내려 시험을 보았다고 한다. 그만큼 귀한 과일로 대접받은 것이다.

과즙이 많은 귤의 과육은 성질이 차갑다. 대부분의 과즙 많은 여름 과일 혹은 열대 과일들과 비슷하다. 새콤한 맛으로 소화를 촉진시키고 과즙이 많아 갈증을 해소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고 수분질이 부족한 양 체질인 사람에게는 잘 맞는다.

약으로 많이 쓰인 것은 귤의 과육보다는 껍질 부분이다. 동의보감에는 귤 껍질의 성질이 따듯하며 가슴에 기가 뭉친 것을 풀고 소화를 잘 시킨다고 기록하고 있다. 위를 보호하고 속을 편안하게 하는 데 약으로 쓰이는 것이다.

특히 속이 찬 음 체질의 경우 겨울철 몸에 냉기가 스며들면 장운동이 더 느려지고 자주 체하기 쉽다. 이들에게는 귤 껍질을 달여 차로 마시면 좋다. 버려지는 껍질을 활용하기 때문에 한가득 나오는 귤 껍질 쓰레기로 신경 쓸 필요도 없어진다.

먼저 귤을 물에 5분 정도 담가 잔여농약을 제거한다. 식초나 베이킹 소다를 푼 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준다. 세척한 귤을 두고 먹으면서 귤 껍질은 작게 잘라 채반에 펼쳐 올려놓아 말린다. 집 안에 두고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말리면 된다.

이대로 완전히 말려도 좋지만 맛을 좀더 좋게 하려면, 3분의 2정도 말랐을 때 후라이팬에 넣고 가장 약한 불로 볶듯이 덖어 수분을 완전히 날려준다. 이렇게 만든 귤 껍질을 뜨거운 물에 부어 우려내 마시거나 끓는 물에 넣고 중불로 약 15~20분 정도 끓여 식수처럼 마셔도 된다.

귤 껍질은 향은 좋지만 맛은 밋밋한 편이다. 이럴 때에는 꿀을 함께 넣어 마시거나 대추나 생강 등 성질이 따뜻하고 입맛에 맞는 재료들을 살짝 넣어 끓여내면 훨씬 마시기 좋아진다.

/김소형 한의사(bonchotherapy.com)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9		7
6						1	8	4
9				8			3	
			7	9		5		
				4				
		1		2	6			
	6			1				5
8	3	9						1
1		4				3		

	2	5	8					
		8			5	9		
9			7			3		
				5	7	2		
5								1
		3	6	1				
		4			8			3
		9	1			8		
					4	6	7	

스도쿠 정답

4	8	2	6	3	1	9	5	7
6	7	3	2	5	9	1	8	4
9	1	5	4	8	7	2	3	6
3	4	6	7	9	8	5	1	2
7	2	8	1	4	5	6	9	3
5	9	1	3	2	6	4	7	8
2	6	7	9	1	3	8	4	5
8	3	9	5	6	4	7	2	1
1	5	4	8	7	2	3	6	9

3	2	5	8	9	1	7	6	4
4	7	8	3	6	5	9	1	2
9	1	6	7	4	2	3	5	8
8	9	1	4	5	7	2	3	6
5	6	7	2	8	3	4	9	1
2	4	3	6	1	9	5	8	7
6	5	4	9	7	8	1	2	3
7	3	9	1	2	6	8	4	5
1	8	2	5	3	4	6	7	9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남편과 사별, 보험영업 너무 힘들어
봉제배우면 2년후 좋은 일 생길듯

Q 달별사랑 여자 1966년 12월 27일 양력 오시

보험 영업일을 하고 있고 남편과 사별 후 아들 둘하고 살고 있는 워킹 맘입니다. 보험일이 쉽지 않은데도 지금까지 버티며 해왔는데 제 사주에는 돈이 없는 건지 너무 힘듭니다. 지금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른 직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건지 아닌지 선생님께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상담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불규칙적인 돈보다는 정기적인 봉급이 들어오는 직장생활을 해야 적은 돈이더라도 계획이 설 텐데 운에서의 흐름이 고르지 못하면 쉬어감이 반복되어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못합니다. 팔자에서 연(年) 월(月)이 충돌이 되니 영업보다는 기술직으로 전환해 보십시오. 생일에 록(祿)을 갖고 있어서 2년 뒤부터는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봉제를 배운다면 힘은 들겠으나 실적 없이 고뇌하는 현실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에서 삶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고 봅니다. 간여지동(干與支同:천간과 지지가 같음)으로 서로 어깨를 견주어 밀어 내는 형국에 처하면 부부간 생사이별을 겪게 되거나 각거(各居)하게 되니 이 또한 운명입니다. 보험업에 어려움을 느끼겠으나 기술을 배워 다른 직업을 갖기 전까지는 현재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겠지요. 자신이 원하지만 본인에게 불리한 기운을 가진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좋지 않은 기운을 타고 났다 하더라도 주위의 환경을 자신의 의지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사주팔자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사주팔자 속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분명 그 분야에 있어서 작게라도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하는 인생의 로드맵(Road map:인생의 지도)으로서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점치는데 중요한 바탕이 되는데 자신의 강한 의지로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좋지 못한 사주팔자를 타고난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불행하게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좋지 못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2월 23일 (음 11월 2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흔들리는 마음부터 안정 시켜라. **60년생** 자녀가 믿음에 보답한다. **72년생** 토론은 다 꺼내놓아야 효과~. **84년생** 대식구에 바람 잘 날 없는 격이다

49년생 자녀가 희소식 전한다. **61년생** 양보할 땐 확실히 할 것. **73년생** 푸욱 빠질 취미가 생긴다. **85년생** 싱글은 궁합이 맞는 이성이 접근하니 잘 살펴라.

50년생 모사꾼 속임수 조심할 것. **62년생** 인색하면 면전에 냉대 받는다. **74년생** 상사에 불만이 많아도 꾹꾹 참아라. **86년생** 꼬인 일은 하나씩 풀린다.

51년생 과감할수록 이득이 많다. **63년생** 지나친 당근은 역효과 각오하라. **75년생** 기다리던 소식을 듣는다. **87년생** 살기 힘들어도 벗과 서로 품고 살아라.

52년생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라. **64년생** 허전한데 반가운 벗이 찾아온다. **76년생** 무딘 감각을 살리는데 신경 써라. **88년생** 꿈을 이뤄 무섭게 달린다.

53년생 북쪽이 길한 방향이다. **65년생** 헛바퀴만 돌리는 일은 중단할 것. **77년생** 문제 자식은 다독여주면 달라진다. **89년생** 대책이 없는 모험은 그만~.

42년생 알맹이 없는 명성은 버려라. **54년생** 생각도 못한 공돈이 생긴다. **66년생** 뜻밖의 경사에 꿈인지~생시인지~. **78년생** 노력한 만큼 대접을 받는다.

43년생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55년생** 좋은 문서 들어오니 잡아라. **67년생** 엉망진창인 일은 정리된다. **79년생** 기다리던 소식 문 앞 당도~.

44년생 대접받으려면 말을 아껴라. **56년생** 하고 싶은 일 하면 실패해도 후회 없다. **68년생** 내 배의 선장이 되어보라. **80년생** 혼자 웃을 경사 기다린다.

45년생 오라는 곳이 많아 바쁘다. **57년생** 모든 것 내려놓고 참된 휴식을 얻어 보자. **69년생** 자녀 애교에 고단함 위로 받는다. **81년생** 움직이는 일 자제하라.

46년생 자손에 짐을 남기지 말라. **58년생**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다. **70년생** 삶은 하루하루 죽는 것이니 매사 즐겨라. **82년생** 뜻이 강하면 길은 열린다.

47년생 전성기 생각하면 우울해진다. **59년생** 불신 부채질하는 사람은 멀리하라. **71년생** 명분이 약하면 밀리게 된다. **83년생** 큰 무대서 자신의 브랜드 더 키워라.

울리 슈틸리케(사진) 대표팀 감독은 22일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1월 호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안컵에 출전할 선수 23명 명단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제는 변화할 때다”

아시안컵 23명 발표

박주영·홍정호·윤석영 제외… 이정협 ‘깜짝 발탁’

내년 1월 호주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축구대회에 출전할 한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의 명단이 발표됐다.

울리 슈틸리케(독일) 대표팀 감독은 22일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1월 호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안컵에 출전할 선수 2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공격수로 선발된 이정협(상주 상무)의 깜짝 발탁이 눈에 띈다. 이정협은 대표팀의 12월 제주 전지훈련에 발탁된 선수로 키 186㎝의 장신 공격수 자원이다. 이정협은 조영철(카타르SC)·이근호(엘자이시) 등 3명과 함께 대표팀 최전방을 책임진다.

이명주(알아인)·기성용(스완지시티)·한국영(카타르SC)·손흥민(레버쿠젠)·김민우(사간도스)·구자철(마인츠05)·남태희(레퀴야SC)·한교원(전북)·이청용(볼턴) 등 9명의 익숙한 선수들이 이름을 올렸다.

수비진은 최근 분데스리가 호펜하임에서 5경기 연속 풀타임 출장하며 맹활약 중인 김진수(호펜하임)를 포함해 박주호(마인츠05)·장현수(광저우 푸리)·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김주영(서울)·곽태휘(알힐랄)·김창수(가시와 레이솔)·차두리(서울) 8명이다.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와 윤석영(QPR)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골키퍼는 김진현(세레소 오사카)·김승규(울산)·정성룡(수원)이 발탁됐다. 부상 중인 이동국(전북)과 김신욱(울산), 사우디아라비아 알 샤밥에서 뛰고 있는 박주영(알 샤밥)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난 10월 18일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첫 경기에서 골을 뽑았던 박주영은 이후 6경기 연속 골을 추가하지 못했다. 최근 5경기에서는 모두 풀타임 출장했으나 골 가뭄을 풀지 못하고 있다.

슈틸리케 감독은 박주영의 제외 이유에 대해 “개인적 의견 때문은 아니다. 선수 소집 여부는 경기장에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든 것을 보여주는지에 달렸다. 소집 선수들의 훈련 태도와 그라운드에서 경기력을 중요하게 봤다”며 “전형적인 타깃맨을 찾다가 보니 이정협을 골랐다”고 설명했다.

아시안컵에 나설 대표팀 23명은 27일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다. 한국은 호주·쿠웨이트·오만과 함께 A조에서 조별리그 경기를 펼친다. 대표팀은 내년 1월 4일 오후 6시 시드니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한 차례 평가전을 갖는다. 1960년 이후 55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에 도전하는 한국은 이번 대회 슬로건을 ‘타임 포 체인지’로 정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비활동기간과 한국야구의 허약성

비활동기간 집단훈련 문제를 놓고 선수들과 기성 감독들의 이해가 상충되고 있다. 선수들은 시즌 내내 전지훈련과 경기를 하느라 지친 몸을 쉬고 떨어진 가족과 부모들을 챙기고 연말 행사도 참여하는 등 힐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물론 이 기간 중 자율훈련의 명목으로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하거나 해외 훈련 혹은 구단이 제공한 시설에서 훈련을 한다.

대표적으로 김성근 한화 감독은 12월에도 집단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을 마무리 훈련과 봄 전지훈련 중간에 가열찬 훈련을 해야 선수들의 기량이 확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12월 훈련을 쉬면 11월 훈련이 쓸모 없어지는 자살행위”라는 말까지 하면서 선수협을 비판했다.

김 감독의 주장에는 혹독한 훈련을 통해 경기력이 나아지면 개인과 팀 성적이 올라가고 팬들도 좋아하고 선수들은 연봉 인상으로 이어져 윈윈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김 감독은 11월 오키나와 가을 훈련에 이어 12월에도 주전, 코치, 트레이너를 포함한 집단훈련을 추진하려다 선수협의 강력 반대로 무산됐다.

선수협은 “그동안 신인과 재활선수들의 훈련은 허용했는데 김성근 감독 때문에 재활훈련도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선수협이 김 감독을 지목하자 팬까지 가세해 거센 논쟁이 벌어졌다. 김감독을 지지하는 팬은 최근 수년간 한화 성적이 꼴찌인데 24시간 훈련해도 모자랄 판국에 선수협이 방해한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다른 쪽에서는 비활동기간 엄수는 선수협을 장악한 스타 기득권층이 미래 경쟁자들의 싹을 자르려는 조치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솔직히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여전히 한국프로야구의 토대가 허약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대체 언제까지 감독이 강제적으로 12월 집단훈련을 시켜야 기량이 훌륭해지는 것일까? 물론 신인, 재활, 저연봉 선수들을 위한 경쟁력 증강을 위한 훈련 여건은 마련해주는 것이 옳지만 앞으로는 스스로 기량을 향상시키는 프로의 원칙이 뿌리내려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프로야구로 발전하는 것이다.

/OSEN 야구전문기자

이용대-유연성 ‘역시 세계랭킹 1위’

수퍼시리즈 파이널 남자복식 우승

한국 배드민턴 남자 복식의 간판 이용대(삼성전기)-유연성(수원시청)이 국제 대회 ‘왕중왕전’에서 세계 랭킹 1위의 굳건함을 과시했다.

이용대-유연성은 21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2014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수퍼시리즈 파이널 남자복식 결승전에서 차이바오-홍웨이(중국)와 접전 끝에 2-1(19-21 21-19 21-16)로 역전승을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결승전에서 이용대-유연성은 세계 랭킹 7위 차이바오-홍웨이에 첫 세트를 내주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이후 두 세트를 내리 따내 1시간 24분의 접전 끝에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 대회는 배드민턴 국제경기 중 올림픽·세계선수권 대회 다음으로 등급이 높은 슈퍼시리즈와 슈퍼시리즈 프리미어의 한 해 성적으로 매긴 순위로 각 종목(남녀 단식·남녀 복식·혼합 복식) 상위 8개 팀만 출전해 챔피언을 가린다. 총상금은 100만 달러(약 11억원)이며 세계랭킹 포인트도 슈퍼시리즈 프리미어 대회와 동일하게 부여된다.

이용대(왼쪽)와 유연성. /연합뉴스

2008년 첫 대회 이후 한국 선수 중에는 이용대-정재성이 2009년 남자복식 정상에 오른 것이 유일한 우승 기록이었다. 5년 만에 이용대-유연성이 다시금 ‘금빛 스매싱’을 날렸다.

이용대-유연성은 올해 8월 남자복식 세계 랭킹 1위로 올라선 뒤 세계개인선수권대회와 인천아시안게임 남자복식에서 잇달아 준우승을 차지해 아쉬움을 남겼다. 2014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한편 여자 단식의 성지현(MG새마을금고)은 결승에 진출했으나 타이쯔잉(대만)에게 0-2(17-21 12-21)로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

류승우 2018년까지 레버쿠젠서

브라운슈바이크 임대는 6개월 연장

류승우(21·사진)가 오는 2018년까지 독일 프로축구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뛰게 됐다.

레버쿠젠은 구단과 류승우가 2018년까지 계약했다고 21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또한 그가 현재 임대된 팀 브라운슈바이크(2부리그)와의 계약도 6개월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류승우는 지난해 12월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에 입단하자마자 레버쿠젠으로 1년 임대됐다. 그러나 K리그 복귀를 앞두고 지난 19일 레버쿠젠으로 완전 이적했다고 알려졌다. 계약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

류승우는 올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브라운슈바이크 유니폼을 입고 뛸 전망이다.

레버쿠젠에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한 그는 올 여름부터 연말까지 브라운슈바이크로 다시 임대된 상태다. 브라운슈바이크에서는 정규리그 12경기에 나와 4골을 올리며 활약하고 있다.

류승우의 활약에 힘입어 브라운슈바이크는 독일 2부리그 18개 팀 가운데 4위에 올라 내년 1부 승격의 희망을 키우고 있다. /장병호기자

프로농구 전적 22일

LG	20	11	15	27	73
SK	14	27	28	18	87
신한은행	21	18	17	14	70
국민은행	24	12	14	24	74

프로배구 전적 22일

현대건설	3	0	KGC인삼공사
한국전력	0	3	삼성화재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
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
천연미네랄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